

다 함께



전쟁 반대

<다함께>는 기원 광고 협찬을 일체 받지 않으며 구독료로 운영·발간됩니다.

주요 기사 : 문명 충돌론 비판 /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 이슬람 / 시오니즘

특집

김대중은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	3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 비판	6
아프가니스탄	8
갈릴 길에 선 파키스탄	11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이유	14
전쟁, 거짓말 그리고 언론	19
유엔	21

전쟁을 반대하는 주장들

홍근수 (향린 교회 목사)	23
이마드 자우하르 (명지대 교수)	24
영국 과학자들의 반전 성명서	25

마르크스주의를 배운다

전쟁에 대한 사회 변혁가들의 태도	28
--------------------------	----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편견	32
유대 시오니즘의 본질	36

격동의 세계

일본의 군사대국화	42
-----------------	----

저항의 세계화

세계화 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44
부패-자본주의의 만성 고질병	47
출입국 규제를 철폐하라	49

독자 편지

서평



특집

미국의 보복 공격 반대

“다함께”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니스에서 벌어진 세계 자본주의의 반대 시위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 구호 “투장상블”(Tous Ensemble)을 우리 말로 옮긴 것입니다. 노동자든 학생이든, 남자든 여자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누구나 이윤 지상주의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면 읽을 수 있는 간행물입니다.

—“다함께”에 가입하고 싶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E-mail : dlpsg@hanimail.com

Tel : 02-961-4546/Fax : 02-968-5907

— 독자편지, 투쟁소식/보고 등을 보내주시시오. 항상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호 마감은 11월 13일입니다.

E-mail : editdlpsg@hanimail.com

김대중은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

강철구

김대중은 부시의 더러운 전쟁을 미화하기 위해 워싱턴의 전쟁광들이 지껄이는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흉내내고 있다. 김대중은 무고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죽이는 전쟁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김대중은 한술 더 떠, 광란의 전쟁몰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 주기 위해” 분담금을 지원하고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회창도 부시의 전쟁을 “찬양·고무”하는 데 발벗고 나섰다. 이회창은 전쟁에 대해서 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전쟁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살기 편 어조로 말했다.

김대중과 이 나라 지배자들은 전쟁 동참이 세계 평화에 대한 헌신이라도 되는 양 역겨운 위선을 떨고 있다.

김대중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 비용에는 5억 달러나 분담하겠다고면서 가난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 내놓은 돈은 고작 1백만 달러뿐이었다.

김대중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생명이 꺼질 수도 있다는 구호 단체들의 절박한 요청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쌀이 남아도는데도 말이다.



김대중은 오로지 전쟁광 부시에게 자신이 확고한 동맹임을 입증하려 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끝갈 데 없는 정치 위기를 돌파하고 국내 억압을 강화하는 데 전쟁 분위기를 한껏 이용하길 원한다.

지배자들의 전쟁 지원 전력

김대중은 36년 전에도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투병 파병안에 협력한 전력 있다. 1965년, 당시 여당 공화당은 반전 여론을 무시하고 한일국교 정상화 국회 비준과 월남파병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당시 통합 야당이었던 민중당의 입장은 분열돼 있었다. 당시 민중당 대변인이었던 김대중은 원내총무였던 김영삼과 함께 베트남에 파병하자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 주려고 국회에 출석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전장에서 5천여 명의 한국 병사들이 죽었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고엽제 등의 후유증을 앓았다. 파월 한국 병사들은 4만여 명이 넘는 베트남인들을 잔인하게 학살 하도록 내몰렸다.

친미 이중대였던 한국의 역대 지배자들은 해외 파병에 적극적이었다. 노태우는 걸프전에 5억 달러의 전비 지원과 비전투병을 보냈다. 김영삼은 1993년에 소말리아에, 1995년에는 앙골라에 UN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의 임무는 평화 유지가 아니라 직접 학살에 앞장서거나 학살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이었다. 소말리아에서 평화유지군은 수많은 소말리아인들을 살해했다. 앙골라에서 평화유지군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앙골라 우

폭격 당한 카블의 민간인 마을

익의 만행을 바라보기만 했다.

김대중은 1999년에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1975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 하면서 동티모르를 식민지로 만든 인도네시아의 이전 독재자 수하르토에 대한 서방의 애정을 김대중도 공유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학살자 수하르토가 1998년 5월 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날 때까지 미국과 수하르토의 눈치를 살피느라 동티모르 독립 운동가들을 냉대하고 무시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것이 “민주 국가의 의무”라고 말한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위선이었다.

전쟁 지원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김대중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부시의 전쟁과 김대중의 전쟁 지원 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10월 10일에는 7백65개에 달하는 국내의 거의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부시의 전쟁 반대와 김대중의 전쟁 지원 반대를 선언했다.

미국의 군사 보복을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전투 병력이나 비전투 병력이나, 혹은 병력이나 물자와 자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오며,

테러를 근절하지도 못하고,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군사 적대를 뿌리내리게 할 뿐이다.

10월 8일 부시의 공습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고, 10월 13일에는 명동성당에서 반전 집회가 열렸다. 김대중의 전쟁 지원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반전 운동이 더욱 광범하게 확대돼야 한다.

전쟁 지원 반대 운동은 김대중이 테러 근절을 빌미로 국내의 억압 조치들을 강화하려 하는 것에도 저항해야 한다.

김대중은 “세계 어느 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으며 특히 내년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하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김대중도 부시를 본떠 인종 차별과 억압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0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파키스탄인 아크바르 샤

켈 씨를 “테러 관련 용의점은 없었으나 국내 행선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우편물 검색도 강화하려 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미국은] 걸프전 때보다 3배 정도 많이 분담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5억 달러면 40만 명의 대학생(1년에 4백만 원 기준)들에게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이면 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 왜 이런 막대한 돈이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살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가.

정의와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김대중의 전쟁 지원 노력을 좌절시켜야 한다. 그리고 “테러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김대중이 나라 안팎에서 저지르려 하는 야만적 행위를 좌절시켜야 한다.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 비판

이정구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이후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이 유명해졌다. 부시는 테러에 대한 보복 전쟁을 약속하면서, 비록 나중에 철회하기는 했지만 “십자군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문명 세계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 비문명 세계에 속한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잘못된 편에 속해 있거나 않은지 재고해 보기 시작했다.” 하고 말했다.

이런 주장들의 핵심은 간단하다. 이 세계는 문명 사회와 비문명 사회로 나뉘어 있으며, 자유, 관용, 번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문명 사회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펼친 책이 이번 테러 사태를 계기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바로 새뮤얼 헌팅턴이 쓴 《문명의 충돌》이 그 책이다.

새뮤얼 헌팅턴은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 촌락들에 폭탄을 대량 투하하는 근거를 만들었던 인물이다. 헌팅턴은 수천 톤의 폭탄과 화학 무기 사용을 핵심 골자로 한 ‘정착촌’ 전략을 수립한 장본인이다. 베트남전 당시 베

트남 민족해방전선(NLF) 전사들이 농촌에서 광범한 지지를 얻자 헌팅턴은 농촌을 초토화시켜 그 주민들을 도시로 내몰면 NLF가 지지 기반을 잃게 돼, 결국 미국이 ‘베트콩’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물론 그의 예측은 빗나갔다. 하지만 헌팅턴은 베트남 촌락에 대한 융단 폭격, 네이탐탄, 고엽제 등을 “문명”이라는 말로 정당화했다.

왜곡

새뮤얼 헌팅턴은 냉전 종식 뒤 등장한 신 세계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세계 정치의 주된 갈등은 상이한 문명 집단들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으로 그는 문명의 충돌이 전 세계 정치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명 충돌론은 냉전 해체 이후 제국주의 전쟁의 본질을 은폐하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냉전의 전사이자 전범인 헨리 키신저는 헌팅턴의 책을 두고 “21세기 세계 정치의 현실을 포착하는 강력한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문명 충돌론은 서방과 자국 지배

자들에 대한 제3세계 민중의 들끓는 분노와 그들의 일부가 자살 테러를 감행하게 만드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또, 문명 충돌론은 중앙 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조지 W 부시가 벌이는 추악한 전쟁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무엇보다, 문명 충돌론은 모든 문명에서 갈등의 근본 원인인 계급 간의 투쟁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헌팅턴의 책을 읽어 보면 그가 “문명”이라는 단어를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때는 그는 문명을 ‘아프리카 문명’처럼 지역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슬람’이나 ‘서구 그리스도교’나 ‘동방 정교’와 같은 종교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본’처럼 국민국가를 지칭하기도 한다.

문명에 대한 이런 혼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 왜곡을 밥 먹듯 한다는 점이다.

헌팅턴은 “이슬람의 퍼문은 경계선”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뉴욕 타임스>가 1990년대 초반에 지목한 31개 상이한 문명 간의 갈

등 가운데 3분의 2인 21개가 이슬람교도와 연관돼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31개의 상이한 문명 간의 갈등은 각각 상대편이 존재한다. 그러면 62개의 문명 중에서 이슬람이 개입된 경우는 21개뿐이다. 이것은 이슬람 문명이 세계를 가로지르는 가장 긴 육로 국경선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 육로 국경선을 사이에 둔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갈등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헌팅턴은 사실들을 제 눈에 물 대기 식으로 해석해, “이슬람 교도의 호전성과 폭력성은 이슬람 교도도 비이슬람 교도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20세기 후반의 엄연한 사실”이라고 결론내린다. 헌팅턴은 그 근거로 1980년대 이슬람 국가들의 군사화를 떠벌린다.

하지만 헌팅턴은 서구, 특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이라크 등의 국가들에 판매한 엄청난 액수의 무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이슬람 국가들이 1980년대에 군비 지출을 비약적으로 늘린 것은 서구, 특히 미국 지배자들이 석유를 지배하기 위해 아랍의 부패한 지배자들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헌팅턴은 유교권의 핵심 국가인 중국의 부상을 경계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본다. 헌팅턴은 중국과 북한이 이슬람 국가들(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슬람-유교 동맹”을 서방의 잠재적인 적대 문명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슬람 국가에 판매하는 무기의 질과 액수는 중국이나 북한의 10배가 넘는다. 헌팅턴의 논리대로라면 서구와 이슬람의 동맹이 더 맞는 그림일 것이다.

《문명의 충돌》 말미에서 헌팅턴은 중국이 시작하는 제3차세계대전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물론 중국도 자국 내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국경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제국주의 국가다. 하지만 미국 군사력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군사

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위협 세력이라는 주장은 과장도 이만저만한 과장이 아니다.

폭력성

헌팅턴은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극찬하는 신보수주의자다. 그는 “서구가 다른 문명들과 차이나는 점은 문명의 전개 과정이 아니라 낱다른 가치관과 제도이다. … 서구는 이런 자산을 활용하여 근대성을 창안하고 전 세계로 팽창하면서 다른 문명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런 특성들의 조화는 서구만의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서구 사회가 자신의 독특한 가치관과 제도를 다른 문명에 강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서구 지배자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가장 큰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헌팅턴에 따르면 서구 문명의 가치라는 민주주의, 자유, 다원주의, 법치주의 등이 비서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비서구 사회가 서구의 정신적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비서방 국가들에서 수많은 친서방 정권들이 쿠데타나 혁명 또는 선거로 밀려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서구 지역에서는 서구적 가치가 정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메스꺼우리만큼 심각한 왜곡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옌테 정권을 피노체트 쿠데타로 전복했던 것이 미국 아니었던가? 1979년 이란 민중에 의해 추방당했던 부패한 국왕 팔레비를 수십년 동안 정치적·군사적으로 후원해 왔던 게 미국과 영국 아니었던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방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했고 지금 전쟁광 아리엘 샤론을 지원하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 아닌가?

서방 문명,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은 비서방 국가들에 개입하여, 헌팅턴이 서방의 가치라고 자랑하던 민주주의, 다원주의, 법치주의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비서방 국가들을 침략하여, 그 지역의 문명과 제도를 파괴하고 부를 약탈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된 아프리카의 농담은 서방 문명이 어떤 것을 저질렀는지를 말해 준다. “백인이 다가와 자신들은 성경을 갖고 있고 우리들은 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보니 우리는 성경을 갖게 됐고 백인은 땅을 갖게 됐다.”

서구 문명

헌팅턴은 예닐곱 개의 문명이 서로 조화하거나 화합하기보다는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본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다원주의조차 부정하는 꼴이다. 그는 “아무리 경제적 결속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아시아와 미국은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 살림을 차릴 수가 없다. … 다원 문화주의자들은 이 관계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파괴하려고까지 하지만 그것은 부인 못할 엄연한 사실이다.” 하고 말한다.

기독교가 중심이 된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신봉하고 있는 헌팅턴은 지난 역사에서 기독교 문명이 저지른 만행들, 가령 중세의 마녀사냥과 십자군 전쟁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사실을 잊고 있을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비서방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부를 빼앗아 문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부흥시켰다. 하지만 헌팅턴이 칭송하는 서구 문명의 이면에는 앞서 지적인 야만도 함께 존재한다.

헌팅턴은 이 세계를 문명끼리의 충돌이라 한 가지 논리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1991년 제2차 걸프전, 1999년 나토의 발칸 전쟁 같은 1990년대의 국제 분쟁은 물론이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조지 W 부시의 전쟁조차 설명하지 못한다. 서방 지배자들의 입맛에나 맞을 그의 책은 사물을 왜곡시키는 오목렌즈와 비슷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은 역겹도록 혐오스런 책이다.



아프가니스탄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

이수연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더 이상 석기 시대로 되돌릴 것도 없는” 나라가 됐다. 20년 넘게 계속된 내전으로 전국은 황폐해졌고, 카불을 비롯한 여러 도시는 돌무더기만 남아 있는 폐허나 다름없다.

인구의 85퍼센트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나마 몇 안 되던 옥토조차 황무지로 변한 지 오래다.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다. 거의 4백만 명의 난민이 파키스탄·이란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고, 문맹률은 거의 65퍼센트에 이른다. 아프가니스탄의 보건 위생은 세계 최악이다. 평균 수명은 남성이 43세, 여성이 43.5세에 불과하다. 5세 이하 유아 사망률은 세계 4위고, 산모 사망률은 세계 2위다. 1996~1998년에 이미 인구의 70퍼센트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다. 온갖 질병들이 창궐하지만 적절한 치료 시설이 없어 말라리아에 감염된 어린이는 닷새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 간다.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은 150년 넘게 계속된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과 점령이 낳은 결과다.

근대적 의미의 아프가니스탄 국가는 남부 파슈툰족 족장들이 아흐마드를 샤(국왕)로 옹립한 1747년에 수립됐다. 그는 칸다하르·헤라트·카불을 통치하면서 비옥한 평

야 지대인 페샤와르와 신드, 목초지가 풍부한 카슈미르 계곡에서 획득한 공물을 족장들에게 나눠 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충성을 확보했다. 그 대가로 족장들은 아흐마드 샤에게 충성을 바치면서도 자기 지역에서는 사실상 독자적인 지배자로 군림했다.

그런데 인도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남진정책을 추구하던 제정 러시아가 19세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서로 충돌했다. 러시아는 옥수스 강 북쪽의 영토를 점령했고, 영국은 ‘듀런드 선’을 그어 파슈툰족 공동체를 둘로 나누었다. 이 두 제국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선을 획정했다.

영국령 인도 주재 총독 커즌 경은 1898년에 아프가니스탄과 그 인접국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 나라들은 장기관의 줄이나 다름없다. 그 장기관 위에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진행된 게임은 세 차례에 걸친 아프간 전쟁으로 이어졌다. 제1차 아프간 전쟁이 벌어질 때까지만 해도 아프간인들에게는 국민적 정체성 같은 것이 없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종족과 언어는 국민 국가라는 고유한 의식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프간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것은 바로 공통의 종교적 기반, 즉 이슬람

이었다. 아프간 전쟁을 치르면서 ‘이교도’의 침입에 맞선 이슬람의 ‘성전’(聖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결국 1905년에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보호령으로 전락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 1919년에 영국에서 독립했다.

냉전

20세기 후반의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돌했다.

1933년에 왕좌에 오른 무함마드 자이르 샤는 자기 사촌 무함마드 다우드에게 쫓겨나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다. 1973년에 무함마드 다우드는 국왕의 외유를 틈타 좌익 파르칸당의 지원을 받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는 공화국을 선포한 뒤 스스로 대통령이 됐다. 파르칸당은 1977년에 역시 좌파인 칼크당과 연합하여 아프간인민민주당(PDPA)을 결성했다.

1978년 이번에는 PDPA가 쿠데타를 일으켜 다우드를 살해하고 정권을 잡았다. 소련의 지령을 충실히 따르는 무함마드 타라키가 ‘혁명평의회’를 구성하고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

그러나 집권당의 두 정파가 분열하고, 정

적 숙청과 토지개혁에 대한 반발이 겹치면서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졌다. 이 때부터 무자헤딘의 저항이 시작됐다.

1979년 초 인접국 이란에서 일어난 혁명에 질겁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마저 소련에 넘어갈까 봐 전전긍긍했다. 그래서 미국은 비밀리에 무자헤딘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79년 9월에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타라키가 암살당하고 아민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나 정정은 여전히 불안했고 반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그 해 12월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아민을 제거하고 바브라크 카르말을 통치자로 내세웠다.

미국은 '이교도'의 침입에 맞서 '성전'을 부르짖는 무자헤딘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카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파키스탄의 군 정보기관인 ISI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CIA(미국 중앙정보국)는 1980~85년에 36개 이슬람 국가에서 수천 명의 자원병을 모집하여 전사로 훈련시켰다. 오사마 빈 라덴도 이 '아랍계 아프간인들' 중 한 명이었다. 이 전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알 카에다 조직에 합류했고 전에 자기들을 후원

했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 싸우게 된다.

1980년대에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의 전사들의 저항은 우리가 이 나라[미국]에서 견지하고 있는 이상, 즉 자유와 독립이라는 이상이 결코 꺾일 수 없다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보여 주는 사례다.”

무자헤딘

1980년부터 1992년까지 무자헤딘은 미국과 그 동맹국으로부터 1백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았다. 1986년에 CIA 국장 윌리엄 케이시는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의 군사 고문을 파견하여 “자유인 전사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의회를 설득했다.

무자헤딘은 미국의 양대 정당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공화당 상원의원 오린 해치는 “자유인 전사들”이 “단호함과 두들한 배짱”을 갖고 있다고 칭찬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빌 브래들리는 무자헤딘을 “아프간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IA와 펜타곤(미국 국방부)은 파키스탄

의 이슬람 학교와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기지를 잇는 연결망을 구축하고 무자헤딘을 훈련시켰다. 미국이 무자헤딘에게 제공한 스텔어 미사일은 전황을 소련에 불리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한편, 소련도 무자헤딘을 진압하기 위해 45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최대 11만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조차 무자헤딘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당해 낼 수 없었다. 소련군은 대도시 지역을 장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 밖의 지역은 거의 통제할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 판 베트남’이 됐다.

소련군은 결국 1989년 2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 10년 전쟁 동안 자그마치 아프간인 1백만 명이 죽었고, 6백만 명이 해외로 떠났으며, 2백만 명은 국내 난민 신세가 됐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전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두었다. 1989년 3월 이후 나지불라 정권에 대한 소련의 무기 공급이 재개되면서 곧 끝날 듯하던 내전은 다시 격화됐다.

1992년 3월에 압둘 라시드 도스툼 장군 휘하의 우즈베크계 민병대가 정부를 배반하고 아메드 샤 마수드가 이끄는 타지크계 무자헤딘 게릴라에 합류했다. 이들은 연합해 북부의 요충지인 마자르 이샤리프를 함락시키고 카불로 진격했다.

드디어 그 해 4월 무자헤딘은 카불을 함락시키고 나지불라 정권을 타도했다. 온건파의 지도자인 부르하누딘 람바니가 새 대통령이 됐고, 굴부딘 헤크마티야르가 총리, 마수드가 국방장관이 됐다.

그러나 무자헤딘 정



권도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었다. 반소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느슨한 연합체였던 무자헤딘은 미국과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인도, 인접 중앙 아시아의 공화국 등 여러 나라와 이런 저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제 이들 각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자국의 이익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각축을 벌였다.

이란의 지원을 받던 마수드가 가장 먼저 카불에 입성하여 파슈툰 족의 지지를 받고 있던 헤크마티야르의 카불 진입을 불허했다. 그러자 헤크마티야르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카불을 폭격하여 폐허로 만들고 1주일 동안 2만 5천 명을 죽였다.

냉전기에 소련에 대항하는 전쟁을 위해서 막대한 무기와 자금으로 무자헤딘을 지원했던 미국은 정작 그 피해를 복구하고 새로운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경제 지원에는 한푼도 쓰지 않았다.

탈레반

1994년이 되자 아프가니스탄 국가는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탈레반이 떠올랐다.

탈레반은 이전에 파키스탄 내 아프간 난민촌에서 무자헤딘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던 바로 그 이슬람 학교(‘마드라사스’)에서 30명의 학생으로 출발했다. 파키스탄의 ISF는 미국의 무기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을 지원받아 탈레반을 양성했다. 또, 억압적이기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서 지극히 편협하고 금욕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의 한 종파인 와하비즘을 수입하여 가르쳤다.

탈레반은 부정부패 타파, 내전 세력의 무장 해제, 약탈과 파괴의 중단, 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순수한 이슬람 정부 수립을 내걸고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끊임없는 전쟁의 참화와 절망 속에 허덕이던 아프간 민중은 탈레반을 새로운 대안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처럼 보였고, 수천 명의 청년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

다.

탈레반은 불과 2년여 만에 5만 명의 무장 세력으로 성장했고, 드디어 1996년 9월에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90퍼센트 이상을 장악했다. 옛 무자헤딘 잔존파들, 즉 타지크계의 마수드파, 우즈베크계의 도스툼파, 시아파 하자라 족의 카림 칼릴리파 등은 아프가니스탄 북부로 쫓겨나 반탈레반 투쟁을 계속했다. 이란, 러시아, 인도가 이들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자금을 대주었다.

이슬람 세계의 맹주 자리를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다투고 있던 시아파 이슬람 국가인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탈레반과 양측이었다. 러시아는 탈레반의 이슬람 근본주의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크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소속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인도는 1947년 독립 이래 적대 관계였던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탈레반과 당연히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었다.

진정한 이해관계

그렇다면 탈레반의 결성과 성장을 후원했던 미국이 지금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1995년에 미국 정부는 자국 석유회사 유노켈이 카스피 해 연안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 사업을 지원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할 수 있는 단일 정부가 절실했다. 1996년에 탈레반이 집권하자 유노켈은 탈레반과 송유관 건설 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건설 공사에만 45억 달러가 드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1997년에 나온 세계은행의 연구 보고서는 유노켈이 추진하는 송유관 노선이 기존 러시아 송유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란 결론을 내었다. 유노켈의 부회장 크리스 테거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탈레반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국제적 승인을 얻기만 한다면, 그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탈레반은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미국이 수단에 압력을 넣어 쫓아낸 빈 라덴을 받아들인 탈레반은 집권한 뒤에 이슬람 근본주의를 더욱 강화했고, 미국이 지원했던 군사 훈련 기지를 계속 확대하면서 수많은 무슬림을 전사로 훈련시켜 중동 각지로 내보냈다.

이미 이란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뜨거운 맛을 본 적이 있는 미국으로서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될 세력을 계속 양성하는 탈레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노켈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정 불안을 이유로 송유관 건설 사업을 전면 유보했고, 1997년에 미국은 에너지 전략을 변경해야 했다.

탈레반이 미국에 아직 유용했을 때 브레진스키가 했던 말은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세계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탈레반인가 아니면 소련 제국의 붕괴인가? 흥분한 소수의 무슬림인가 아니면 냉전의 종식인가?”

브레진스키에게 “세계사의 관점”은 다른 아닌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이다.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유지하고 세계를 누비는 미국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미국 제국주의야말로 전 세계적인 불안정과 전쟁,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근본 요인이다. 탈레반이든, 이라크든, 세르비아든 그런 지배 전략을 추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미국은 제아무리 어제의 동맹국일지라도 가차없이 적으로, 악마로 만들어 파괴하고 응징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은 미국의 세계 지배에 관련이 되는 전략적 자연 자원, 즉 석유와 천연가스의 보고인 중동과 카스피 해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과 지배력을 다시금 천명하기 위한 본보기로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제국주의적 지배 전략과 그 실행을 저지하고 좌절시키지 못한다면, 세계적 불안정과 전쟁 위험은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지역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칼림길에 선 파키스탄

이수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폭격은 인접국 파키스탄을 정치적 격랑 속에 빠뜨리고 있다. 내전의 조짐도 엿보이고 군사 쿠데타 설도 나돈다.

파키스탄 최대의 도시인 남부의 카라치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세 명이 죽었다. 발루치스탄 주 퀘타에서는 폭력 시위가 시가전으로 변했다.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 지대인 페샤와르에서는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거리에는 장갑차가 배치됐으며 기관총을 장착한 무개차가 순찰을 돌고 있다.

이제는 반미·반전 구호에 반정부·반체제 구호가 결합되고 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무사라프[파키스탄 대통령]는 정권 안정을 위해 미국에 구걸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무사라프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찰도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위대 체포령에 불복했던 친탈레반 성향의 퀘타 경찰 수사국장이 해임되기도 했다. 그러자 무사라프는 시위 진압에 군대까지 동원하려 한다.

9월 11일의 테러 참사 이후 오사마 빈 라

덴과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표적이 되자 파키스탄은 곤경에 처했다. 과거에 탈레반을 무장시키고 돈을 대주면서 후원했던 파키스탄이 이제 자신의 피조물인 탈레반과 맞서 싸워야 하는 알곳은 운명에 처하게 된 셈이다.

그래서 무사라프는 탈레반과 자국 민중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계속 오락가락했다.

무사라프는 탈레반에게 라텐을 미국에 넘기라고 종용했지만, 탈레반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결국 두 차례 중재단을 보내 탈레반을 설득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정책을 180도 전환해 탈레반과 완전히 단교하고 탈레반 이후를 염두에 두며 자히르 전 국왕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친미

무사라프는 미국의 폭격이 시작된 뒤에 정보부장과 육군 참모부총장을 교체하는 등 군부 내 반대파들을 숙청하면서 자기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시위를 주도하는 이슬람 정당 자미야트 울 이슬라미의 총재를 가택연금하고, 잠무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민병대의 지도자를 체포하는 등 파키스탄 내 친탈레반 세력을 공격했다. 또, 시위에 참가

하는 모든 아프간 난민들을 국경 밖으로 추방했다. 파키스탄 국경수비대는 탈레반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무사라프가 미국을 지지하고 나서자 서방은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라는 명예를 벗겨주었다. 부시는 파키스탄에게 5천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허가했고, 1998년에 파키스탄이 실시한 핵실험을 이유로 미국 의회가 결정한 모든 제재 조치들을 철회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파키스탄에 1억 3천5백만 달러의 긴급 융자 제공을 승인했다. 얼마 전에 미국이 발표한 테러 조직 24개 중 하나가 파키스탄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파키스탄 지원에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파키스탄의 반미·반정부 정서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키스탄의 군사 기지 사용을 “최소화해야” 했다. 미국 국무차관 리처드 아미티지는 파키스탄 정권의 취약성을 언급하면서 “반미·반정부 정서에 기름을 붓지 않는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은 파키스탄의 군사 기지를 사용하지 못한 채 공습을 감행해야 했다.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미국의 동맹국이였다. 파키스탄의 도움이 없었다면 미국은 아



프가니스탄에서 소련에 맞서 싸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냉전이 끝나자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시들해졌다. 더욱이 냉전기에 소련과 가까웠던 인도가 1990년대 들어 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에 접근하자 파키스탄은 찬밥 신세가 됐다.

인도는 미국의 정보통신 산업에 필수적인 고급 두뇌 인력을 제공하는 한편,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파키스탄이 미국의 오랜 우방이긴 했지만 인도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그래서 미국은 카슈미르 분쟁에 대해 전통적으로 파키스탄을 편들었던 태도를 버리고, 지난 1999년의 인도-파키스탄 전쟁 때는 인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카슈미르

1947년에 인도는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식민지 시절 영국의 분열지배 전략에 따른 힌두-이슬람의 갈등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해 독립했다. 이 때 영국의 간접 통치를 받던 6백여 왕국들도 인도와 파키스탄 중 하나를 선택했다.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곳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북부

의 카슈미르 왕국이었다. 카슈미르의 지배자 하리 싱은 힌두교도였지만 피지배자의 절대 다수는 무슬림이었다. 하리 싱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섣뚱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일부 파키스탄인이 수도 스리나가를 점령했고 이에 놀란 왕이 인도군의 도움을 받아 파키스탄인들을 쫓아냈다. 결국 하리 싱은 인도를 선택했고,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에 위치한 카슈미르는 끊임없는 분쟁의 대상이 됐다.

카슈미르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1947년 10월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으로 폭발했다. 전쟁 뒤 카슈미르의 3분의 1은 파키스탄, 나머지는 인도 영토가 됐다. 파키스탄이 점령한 지역은 아자드 카슈미르, 인도 점령지는 잠무 카슈미르라고 불렀다.

1965년에 파키스탄은 잠무 카슈미르를 차지하려고 “그랜드 슬램” 작전을 개시했지만 실패했고, 1971년의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도 패배했다.

파키스탄은 무력으로 카슈미르를 점령할 수 없자 분쟁의 해결책으로 주민 투표를 주장해 왔다. 카슈미르 주민의 60퍼센트 이상이 무슬림인 까닭이다. 그러면서 1989년부터 그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는 무자헤딘

을 지원해 왔다.

반면, 인도는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 지역이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편, 냉전이 끝나자 과거에는 파키스탄의 입장을 지지했던 미국은 ‘불개입’ 정책으로 돌아섰다.

1999년 5월에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파키스탄과 인도 총리를 각각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해결책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평화적 대화뿐”이라며 인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결과 파키스탄의 “독립 이래 가장 강력한 민간인 지도자”라는 평을 듣던 나와즈 샤리프 총리는 군부의 반발을 사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무사라프를 해임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쿠데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사실, 파키스탄 사람들의 대다수는 인도와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카슈미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고 싶어한다. 지금 카슈미르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의 수는 팔레스타인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근본주의

현재 파키스탄 민중 대다수가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들은 선거에서 7퍼센트 이상의 득표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파키스탄에서 대중적인 이슬람 전통은 세속적이고 관용적인 것이었다.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 독재 덕분이었다.

1977년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무함마드 지아 울 하크는 파키스탄의 이슬람화를 추진하여 군부 요직에 무슬림을 중용하고 사회 각 부문의 상층을 무슬림으로 채웠다. 이슬람식 신체 절단이나 태형과 같은 형벌을 도입하고 종교적 소수의 투표권을 박탈했으며

잠무 카슈미르의 스리나카르 공동묘지. 1990년 이후 잠무 카슈미르에서 분리 독립 운동으로 약 2만 명이 죽었다.

이슬람 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샤리아를 제도화했다.

1980년대 이후 성장한 모든 근본주의 세력은 언제나 국가의 후원을 받아 왔다. 파키스탄 군부와 국가 기구의 후견이 없었다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파키스탄 사회에서 발판을 마련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1920년대 터키의 세속적인 지도자 케말 파샤에 비유하곤 했던 무샤라프는

집권 초기에 근본주의자들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했지만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군부가 분열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샤라프 주변에서 다수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력은 강경파 근본주의자들이었던 것이다.

노동자 계급

무샤라프는 9월 27일을 ‘국민 화합의 날’로 정하는 한편, 직접 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 그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9월 24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무샤라프를 면담한 파키스탄노동자연맹(PWC)의 지도부는 무샤라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를 지지하는 노조 지도부의 입장은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9월 19일 무샤라프가 TV 담화를 통해 미국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에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2퍼센트였던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2퍼센트나 됐다.

시위 참가 노동자들은 미국에 대한 군사 기지 제공을 반대하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원치 않는 전쟁을 하라고 다른 나라에 땅을 내주겠느냐”고 분개했다. 그들은 또 무

샤라프가 미국에 군사 기지를 내준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시위 노동자들은 영토 사용을 미국에 허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을 내세워 소련과 싸우게 했을 때도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제공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며 반대했다.

미국의 공습이 시작된 뒤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폭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70퍼센트로 더 늘어났다. 카라치처럼 노동자 계급이 큰 규모로 거주하는 도시에서는 시위 양상이 격렬해졌다.

오늘날 파키스탄 인구 1억 4천만 명 중에 4천5백만 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4천만 명의 노동자 중에 1천만 명 이상이 도시에서 일하고 있으며, 2천만 명 이상이 비농업 노동자다. 전체 노동력 중에서 농업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44.1퍼센트인 반면, 국민총생산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퍼센트에 불과하다.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그만큼 크고 정치적 잠재력도 크다.

지금의 파키스탄은 농업 국가가 아니라 개

발도상국가다. 매우 소규모 정당이지만 1999년 10월의 무샤라프 쿠데타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파키스탄노동당과 같은 정치 좌파, 실업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 여성 운동 등과 같은 투쟁 전통도 있는 나라다.

지금 파키스탄의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듯하다. 그들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대중의 반미·반전·반정부 정서를 대변하지도 못하고 지도하지도 못하는 PWC 노동조합 지도부와 같은 기존 운동 지도부의 정치적 무능력 때문이다.

미국의 보복 전쟁이 계속되고 대중 속에서 반미·반정부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데도, 기존의 운동 지도부가 제대로 대중을 이끌지 못한다면 대중은 더욱더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979년의 이란 혁명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 파키스탄에서도 이슬람 근본주의가 혁명의 성과물을 가로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예정돼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치와 조직을 발전시키면서 진정한 정의로 올바른 대안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이유

김어진

조지 W 부시는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날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10억 달러면 웬만한 공장 1천 개를 지을 수 있다. 그는 이미 경제 제재로 한 달에 5천 명의 어린이가 죽는 나라 이라크에 대해서도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겠다고 버르고도 있다.

부시는 “미국의 선물”이라는 글귀가 쓰인 비상식량 상자 3만 7천 개로 인도주의랍시고 생색을 내려했다. 그러나 식량 배급을 위해 미국이 보유한 250만 개의 래선으로도 아프가니스탄의 기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부시는 이런 나라에 한 달에 25억 원이나 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쉴새없이 떨어뜨렸다.

도대체 이런 정신 나간 만행이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미국이 더 비참해질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석유에 대한 지배

만행의 첫째 동기는 아프가니스탄에 인접한 카스피 해 지역에 매장된 막대한 석유와 천연 가스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카스피 해 인근에는 석유 매장량이 7백억 배럴에서 2천억 배럴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앙 아시아 지역은 “제2의 중동”이라 불리게 됐다. 1997년 미국 동력자원부는 “카

스피 해 석유 매장량의 최대 예상치가 중동의 3분의 2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유노켈, 아모코, 엑손, 모빌, 쉘 브런 같은 미국계 석유 기업들이 이 지역에 몰려 들었다. 그 뒤, “이 자원들의 소유권 건설을 둘러싼 대국들의 물밑 전쟁”이 시작됐다.

중앙 아시아는 1990년대 전까지는 소련의 일부로, 러시아의 앞마당이었다.

냉전이 끝나자 미국은 석유 회사들과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 정치적·군사적 실험들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전형적으로, 1999년 봄에 미국은 과거 소연방에 포함됐던 그루지야·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몰다비아를 묶어 그들의

영문이니셜을 딴 GUUM이라는 친서방 국제 동맹을 결성했다. 그리고 이 첫 회의를 워싱턴에서 가졌다. 이것은 분명 중앙 아시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었다.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등 카스피 해 연안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 방위 조약을 맺고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CENTRAZBAT라 불리는 이 훈련의 주축 군대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상군 공격의 선봉에 나서기로 예정된 제282 공수사단이다. 1998년에는 3천여 명의 미국 공수부대가 카자흐스탄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 아시아의 석유 중 70퍼센트가 매장돼 있는 지역이다.

부시의 전쟁은 가장 약하고 싸우기 쉬운 상대를 무참히 짓밟는 것을 통해, 1990년대 들어 새롭게 떠오른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맹주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부시는 이 전쟁을 통해 중동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다음의 표적으로 이라크가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 부시는 자기 아버지가 2차 걸프전 때 완수하지 못한 후세인 제거라는 임무를 완수하고 싶어한다.

현재 미국은 이집트 북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1981년부터 매년 미국이 해 온 '브라이트 스타'라 불리는 이 군사 훈련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군대가 동원됐다. 이 훈련에 미군 2만 3천 명 등을 포함해 자그마치 7만여 명이나 참여했다.

중동에 대한 지배는 석유에 대한 지배를 뜻한다. 중동에 관한 미국 지배자들의 가장 끔찍한 기억은 1979년 이란 혁명이다. 1978년 12월 이란 혁명이 터지자 독재자 팔레비 국왕을 뜻대로 주무르고 있는 스탠더드 석유(아모코)가 즉시 이란 정유 시설을 폐쇄했다. 미국의 석유 회사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바로그 사실 때문에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

세계의 경찰

미국의 둘째 목적은 여러 강대국들을 견제해서 세계의 경찰로서 자신의 맹주권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게 러시아와 중국은 가장 신경쓰이는 견제 대상이다. 특히 미국의 우익은 공공연하게 중국을 미국의 패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넘보는 세력으로 여긴다. 폴 로저는 미국 우익의 논리를 이렇게 설명한

다. “공화당의 우익들은 미국 지배의 유일한 위협은 중국이 될 거라고 말한다. 만약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할 한 가지 방법은 MD[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 많은 돈을 퍼붓는 일이다.”

“강패 국가” 단속을 핑계로 내세운 MD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옛 소련의 경제는 1980년대 군비 경쟁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붕괴한 바 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중국의 12배이고 군사비는 중국의 8배나 되는데도 미국은 중국이 장차 미국의 실질적 경쟁자가 될까 봐 두려워 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의 경제적 경쟁자들에게 미국의 군사력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한다. 미국은 제2차 걸프전 당시에는 일본과 독일을, 발칸 전쟁 때에는 유럽 연합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

부시는 이번에도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제국주의 열강들이 눈독을 들이는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입증할 기회를 붙잡으려 한다.

더한층의 불안정화

부시의 전쟁은 세계 전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중앙 아시아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정치적·군사적 전장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은 구 소련의 앞마당이었던 중앙 아

1999년 나토 공습으로 다리를 지나가던 열차가 동강나 버렸다.



2001년 10월

영국→

파키스탄→

미국

독일

이탈리아

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부시의 공격이 시작되자 푸틴도 중앙 아시아 단속에 나섰다. 9월 18일 그는 독립국가연합 긴급 정상 회의를 열어, 대미 협상 창구를 러시아로 단일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최근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북쪽 접경 지역인 타지키스탄에 주둔시켜 왔던 병력을 1만 8천여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늘렸다.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해 아랍권이 재편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을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 10월 2일 러시아는 이란과 비밀 군사협력을 맺었다.

결정적으로,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체첸을 단속하는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미 러시아는 1994년 12월 체첸의 수도인 그로즈니를 공습하여 많은 민간인들을 죽인 전력을 갖고 있다. 지금 푸틴은 강도 높은 체첸 진압 작전 개시 날짜를 고르고 있다. 이것은 카스피 해에 대한 러시아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다.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야를 지나는 송유관은 바로 체첸을 통과한다. 더구나 러시아는 체첸을 확실하게 점령해서 나토의 전진 기지인 터키를 압박하고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중앙 아시아의 석유가 동아시아로 향하는 송유관이 건설될 때 자국의 영토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 송유관이 이어지면 수송료·통과 비용 등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신장 자치구와 타림 분지의 석유 산업을 키울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부시의 폭격이 시작되자 송유관 통과 예상 지역인 신장 지역의 자치 활동을 더욱 단속하고 있다.

최대 악마 미국뿐 아니라 다른 악마들도 이번 전쟁

에서 전리품을 찾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블레어는 미·영 동맹으로 이 참에 '유럽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식민지이지 않았던가. 2차 걸프 전 때 전비를 1백30억 달러를 분담했는데도 일장기를 휘두를 수 없었던 일본 우익을 대표해 고이즈미는 재빠르게 자위대 파병 준비를 했다.

세계화의 군사적 얼굴

세계화는 이런 긴장을 더 부추기고 있다. 세계화는 전 세계를 황폐화시키고 불평등을 늘릴 뿐 아니라 투자 지원을 위해 군사력을 증대시켜 전쟁의 연료가 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이해하는 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자본의 세계화는 결코 국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의 권력에 의존해서 자신의 이윤을 보호하려 한다.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부시한테 4천8백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주고 석유 채굴 제한 지역 해제와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교토 의정서 탈퇴라는 선물을 받았다.

세계화는 국제자본주의가 자신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장력에 의존함을 보여 준다. 이것을 부하린은 제국주의라고 표현했다. 부하린의 제국주의론은 오늘날의 세계에도 꼭 들어맞는다.

가장 친미적인 기자 하나는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실리콘 벨리의 기술이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유지하는 제1의 방법은 미국 군대, 미국 공군력, 해군, 해병대다."

금융 자본과 무역 기구들은 이윤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을 일상으로 앗아간다. IMF와 WTO 같은 기구가 강요하는 제3세계에 대한 부채 상환 압력 때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세계
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전 운동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인도네시아

문에 날마다 1만9천 명의 어린이들이 병과 영양실조로 죽는다.

경제 제재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강제적 수단 중 하나다. 자국의 다국적 기업의 재산을 국유화했다는 이유로 40년 동안이나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지 않는 미국의 복수극을 보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CIA는 1973년 칠레뿐 아니라 1954년에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과테말라 정부를 전복시켰다. 과테말라의 아르벤스가 토지 개혁을 단행해서 미국의 유니타이트 프루트(지금의 치키다) 과일 기업의 이익에 도전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각각 1천만 명과 5천만 명을 죽인 1·2차세계대전만큼 시장과 경쟁이 전쟁을 낳는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사례가 있을까?

경쟁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주먹의 다른 표현이다. 이것이 바로 무고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폭격으로 죽이기 위해 돈을 퍼붓는 부시의 전쟁의 근본 동력이다.

1990년대 이후의 전쟁

20세기 전반부의 제국주의 전쟁은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벌이는 제국주의간 전쟁이었다. 냉전 시대 전쟁의 양상은 제국주의 열강이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중국, 베트남, 알제리)과 싸우는 것이었다. “탈냉전기”인 1990년대 이후 전쟁은 한 편에 미국과 서구 제국주의 강국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미국이 훈련시킨 ‘불량배’가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제국주의 전쟁이다. 1991년 2차 걸프전, 1999년 발칸 전쟁,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모두 다 그렇다. 1990년대 이후의 전쟁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탈냉전 시

대에 세계의 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국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자신을 수습하느라 정신 없는 동안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노렸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본보기다. 국민적 지지가 없는 독재 정부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하기에 한결 편했다.

2차 걸프전 당시 “사악한 후세인의 가엾은 쿠웨이트 침공”은 석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본질을 가리는 가면이었다. 다음의 말처럼 2차 걸프전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말이 있을까? “우리가 이라크의 영공을 소유하고 있다. ... 이라크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다. 이게 바로 미국이 위대하다는 증거다. 특히 그 지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가 많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우리 방식은 정말 좋은 것이다.”(1999년 8월에 미국의 군장성 윌리엄 주니 준장이 그 해 8개월 동안 미 공군기 1만 회 출격과 이라크 민간인들 수백 명의 죽음을 놓고 한 말.)

그리고 세르비아 밀로세비치의 인종 청소 종식이 1999년 발칸 전쟁의 목적은 아니었다. 밀로세비치뿐 아니라 보스니아 정권을 포함한 모든 민족주의 정권들이 발칸 반도에서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 게다가 밀로세비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클린턴이 주도한 테이턴 협정을 체결하는 데 공헌한 미국의 협력자였다.

클린턴은 전쟁 초기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했다. “안전하고 확고하고 자유로우며 단결된 좋은 교역 파트너로서 유럽이 필요하다. ... 또한 세계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짐을 우리와 함께 나눌 파트너가 필요하다. ... 이번 코소보 문제에 우리가 관



심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이 세르비아 폭격을 위해 나토 공습기가 1만 7천 번을 출격한 진정한 목적이었다.

야만에서 탈출하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990년대 이후의 다른 전쟁들과 비교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조지 W 부시의 전쟁은 제국주의 열강들과 그들의 하위 파트너들의 아주 불완전한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1~2월 2차 걸프전 당시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애를 먹었지만 적어도 중동에서는 확실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중동에서 91조 원의 전쟁 비용 가운데 39조 원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그 때만큼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동은 지금 정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중동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국 국민들의 반미 분위기에 별별 떨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절친한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했다. 영국조차 이라크로 확산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유보적이다.

둘째, 1990년대 이후의 어느 전쟁 때보다 거대한 반전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방의 강대국 안에서 성장한 반자본주의 시위가 반전 운동으로 집중되고 있다. 다른 어느 곳보다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전쟁 반대 시위는 반정부 시위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반전 시위가 준(準)내전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을 것이다. 가까스로 설득시킨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는 반미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전쟁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톨릭 단체를 포함한 무려 15만 명이 반전 집회에 참가했다. 이런 운동들은 부시와 서방 강대국들의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윤 체제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고달픔과 분노가 전쟁과 어떻게 관계 있는지를 안내심 있게 설명할수록 이 추악한 전쟁에 의문을 느끼는 더 광범한 사람들을 이 운동에 끌어들이 수 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야만에서 구해 줄 이 운동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인류의 미래는 야만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다. 인류의 미래는 그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세계화의 야만적인 얼굴

전쟁, 거짓말 그리고 언론

김덕업

미국의 동시다발 테러 사건 이후 조지 W 부시와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보도 자제 신사 협정을 맺었다. 부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작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리고 “미군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군사 작전에 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군이나 정보당국 관련 웹 사이트도 잠정 폐쇄했다.

부시 정부가 언론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정부의 언론 통제에 맞서 ‘진실’을 말하기는커녕 삼류 전쟁소설을 쓰고 있다.

CNN의 조작

<워싱턴 포스트>의 미디어 비평 담당 기자인 조우얼 아헨바는 현재 언론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다. “미국 언론이 정확한 정보 없이 오보를 남발하고 있다. … 불행하게도 지금 미국은 계속되는 엄청난 혼란의 위기 속에 풍문과 그릇된 정보로 가득하다. 이럴 때 독자와 시청자가 따라야 할 첫번째 원칙은 [언론 보도를] ‘의심’하는 것”이다. 실제로, CNN은 테러 직후 “팔레스타인인들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환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CNN이 보도한 내용은 1991년 걸프전 당시의 것으로 드러났고, CNN도 나중에 이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CNN의 거짓말과 왜곡은 계속됐다. CNN은 테러 용의자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는데, 공개한 용의자 중 한 명은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바로 그 시간에 플로리다에 있었다. 게다가 다른 한 명은 이미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다.

언론의 왜

곡과 거짓말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면 언론의 거짓말 · 조작 · 왜곡 ·

검열 · 보도 통제는 극에 달한다.

1990년이 라크 군대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영

CNN의 팔레스타인 조작 사진

아들을 탈취했다는 기사는 이라크와의 전쟁 열기를 부추긴 결정적 사건이 됐다. 이 사건을 진술한 15살의 쿠웨이트 소녀는 쿠웨이트 병원 간호사가 아니라 다른 아랍 미국 주재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다. 언론은 쿠웨이트 왕가 전속 거대 광고 회사인 힐 앤 노튼에서 배운 그녀의 거짓말 연기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

재갈 물리기

전쟁 물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특히, 반전과 평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나 부시를 비난하는 것은 모두 “비에국적이고 반역과 다름없는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테러 사건 이후 조지 W 부시를 비

판했다는 이유로 기자 몇 명이 해고당했다. 대학 교수 한 명은 징계 위협을 받았다. 한 기자는 테러 이후 부시가 “히둥지둥 도망갔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20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자 몰라 무함마드 오마르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하려다 국무부의 압력에 밀려 방송을 취소했다. “탈레반 지도자의 주장을 내 보내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에는 미국의 주요 5대 방송망인 NBC, CBS, ABC, CNN, 폭스의 고위 이사들이 백악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라덴



서방 언론 보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TV를 불태우는 파키스탄인들

과 알카에다와 관련된 방송 보도에 대해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CNN은 “직접적인 폭력을 조장하는 어떤 내용도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알아서 기었다. 보도 내용에는 빈 라덴과 알 카에다 대변인 술라이만 아부 가이트가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의 언론인들은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쟁 선포가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취재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다반사다. 기자들이 바레인에서 이번 군사작전에 참여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 탑승했을 때, 지휘관들은 기자들에게 작전 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요를 요구했으며 작전 수행 전에 조종사들과 대화하는 것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1차 공격에 나선 항공기들이 모두 귀환할 때까지 기사 송고를 막았다.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을 수행하면서 언론을 통제한 것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다. 아버지 부시가 1989년 12월 파나마를 침공했을 때 언론은 미군 사상자를 취재할 수 없었다. 1983년 레이건의 그레나다 침공 때도 언론은 사흘 동안이나 취재 허가를 얻지 못

했다. 파나마 침공 당시 기자단은 침공이 있는지 5시간 이상이나 파나마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고, 현지에 들어가서도 몇 시간 동안 미군 기지에 발이 묶였다.

아들 부시도 전투 취재를 엄격하게 규제했다. 특히 TV 방송국들은 미군이 촬영한 관제 비디오 테이프를 방송에 내보냈다.

부시의 언론 통제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행정부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언론이 반미 감정을 달래는 기사로 내보내고 ‘테러와의 전쟁’을 긍정적으로 다루도록 유도했다.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 홍보책임자가 파키스탄 공보부 책임자와 만난 직후, 관영 파키스탄 라디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도의 핵심적 내용은 미국 국무부의 발표를 토대로 한 기사를 18건이나 보도했다. 그것은 빈 라덴의 테러 개입과 아프간 피난민들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다.

또, 콜린 파월은 카타르의 인기 방송국 알 자지라에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제언론연구소(IPD)조차 콜린 파월 앞으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전쟁에서도 언론 보도는 군 당국이 제공한 기자 회견문과 테이프로 채워졌다.

전문가 의견의 대부분은 군사 전략가나 펜타곤 대변인 또는 전쟁 옹호론자의 자문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일반인 정보원을 통한 기사의 경우도 전쟁을 찬성하는 일반인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CNN과 영국의 공중과 텔레비전 전쟁 보도의 절반 이상은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스커드 미사일 폭격 영상만이 실제로 ‘생방송’ 됐다.

외면

언론 통제는 전쟁이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수천, 수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다는 진실을 숨기는 구실을 해 왔다. 언론은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뉴스 보도의 3퍼센트만이 ‘인명 살상의 견지에서 본 전투 행위의 결과’였고 텔레비전 영상 이미지의 단 1퍼센트만이 ‘죽음과 상해’에 대한 것이었다. 펜타곤은 전쟁에서 ‘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다. 1991년 1~2월의 2차 걸프전 당시 미국의 바스라 시가지 폭격으로 숲으로 변해 버린 이라크인의 시체를 찍은 사진은 전쟁이 끝난 뒤에야 공개될 수 있었다.

정작 전쟁의 진실을 알린 것은 반전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베트남 전쟁 동안에 정부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언론도 정부의 공식 발표 이상을 좀처럼 넘치 않으려 하자,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병사들은 전국 도처의 군 기지에서 자신들의 신문을 만들었다. 1970년 무렵 이런 종류의 신문은 50종에 달했다. 그리고 반전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학 캠퍼스들에서 열린 반전 토론회, 대안 신문, 집회, 피켓 시위, 데모, 청원, 신문 광고, 벽낙서 등을 통해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었다.

언론 자유가 가장 필요한 때는 전쟁 때이다. 우리에게도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고통과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언론이 필요하다. 《다함께》는 바로 그런 언론을 지향한다. 

UN — 있으면서나하거나 혹은 나쁘거나

[편 집자 주] 유엔과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것은 유엔이 부시의 더러운 전쟁을 지지한 데 대한 '선물'이다.

그러나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엔 사무실이 성난 대중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

이 글은 유엔이 과연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인가 하는 물음에 근본적으로 도전한다.

1991년 1~2월, 이라크는 국제연합(UN)의 이름으로 맹공당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걸프 전쟁이 UN과 침략자 사이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한국 대통령 노태우도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진실은 UN이 단 한 번도 평화라는 큰 뜻에 이바지하는 일을 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UN은 왜 창립됐는가?

UN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들이 세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창립됐다.

대전 중에 미·영·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국제연합"으로 지칭했다. 그리고 대전이 끝나자 그들은 자기들이 '해방시킨' 인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계를 분할하고자 했다.

처칠은 전후 세계 분할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종이 한 장에 낙서해 놓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휘갈겨 쓰여 있다. 소련이 루마니아의 90퍼센트를, 영국은 그리스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양국은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를 공동 점유한다는 것이다. 처칠은 이 비망록을 스탈린에게 보여 줬다. 스탈린은 "파란색 연필을 집어들더니 크게 체크 표시를 하고는 도로 돌려 줬다. 그걸 결정하는 데는 착안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만이 걸렸던 것이다." 처칠은 이렇게 적었다.

미리 예상된 이 정확한 거래는 단지 한 장의 종이조각에 불과한 채로 남아 있지만, 그

과정은 연합국 지도자들이 그 순간에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인민들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었는가를 잘 드러낸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해서, 미국이 '평화'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따라서 UN 본부가 뉴욕에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누가 UN을 지배하는가?

UN 내의 진정한 실체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이 점은 1991년 2월 11일, 당시 유엔 사무총장 케야르가 "... 유엔 안보리는 작전이 개시된 뒤에야 미국·영국·프랑스로부터 [걸프] 전쟁 과정을 통고받고 있을 뿐"이라고 불평했던 데서도 드러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이 안보리 거부권 행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불리한

결의안에 거듭 반대해 왔다.

또, 미국은 약소국 파나마에 대한 자신의 침공(1989년 12월)을 비난하는 UN 결의안에 비토를 놓았다.

전세계에 걸쳐 — 파나마·나카라과·그레나다·베트남·캄보디아 등지에서 — 미국의 인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은 들쭉 거리면 서러워할 정도다.

안보리의 다른 회원국들도 미국처럼 자기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UN을 무시해 버릴



수 있다.

소련이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아프가니스탄·그루지야·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짓밟고 있었을 때 UN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걸프 전쟁의 개시와 거의 동시에, 당시 소련의 관료는 발트해 연안 국가 독립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미국의 공모를 뻔뻔스럽게 얻었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의 손도 미·소보다 결코 더 깨끗하지 못하다.

영국은 말라야와 키프로스 그리고 아덴(예멘)에서 제국(帝國)을 철수하면서 고문 같은 야수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프랑스 제국도 베트남과 알제리에서 철수할 때 똑같은 짓을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프랑스 제국은 야만의 극치를 이루는 독재 정부의 형태를 취했다.

중국은 천안문 광장과 티베트의 비무장 시위대를 탱크로 밀어붙이고 발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진실인즉, UN이란 그저 두 가지 역할 가운데 하나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주요 열강이 분열돼 있으면, UN은 마비된다. 1991년 1월에 이라크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열강들이 서로 합의를 보고 있으면, 초강대국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만을 UN이 제공한다.

UN은 무슨 짓을 해 왔는가?

UN의 최초 행동은 1947년 팔레스타인을 분할해 이미 30년 전부터 1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과 5만 6천 명의 유대인이 살아 왔던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창립한 것이었다. 1940년대 중엽에 유대인 정착자들은 인구의 30퍼센트를 차지했고 토지의 6퍼센트를 소유했다. UN은 그들과 팔레스타인인 둘 다에게 “정의”를 약속했으면서도 이스라엘에 토지의 55퍼센트를 줬다. 이스라엘이 공포 통치를 통해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살던 집에서 쫓아내고 토지의 80 퍼센트를 몰수해 버렸을 때 UN은 아무 일도 안 했다.

한국전쟁 때 UN은 미국의 가리개로서 개

입했다. 한국전쟁은 미·소가 각자의 대리인인 남한과 북한을 앞세우고 후원하면서 벌인 전쟁이었다. 스탈린은 UN을 보이콧했고, 미군은 15개국의 부대를 거느리고 UN 깃발을 달고 왔다. 그 때 ‘연합군’이라는 외피는 UN 사령관 맥아더 휘하에 2백만 명이 넘는 미 육·해·공군에다가 구색 갖춘 나라들의 4만 군대를 덧붙이는 것으로써 유지됐다.

1956년 UN은 수에즈 운하 문제를 놓고 그 때까지와 다르게 행동했지만, 이바지한 목적은 전과 마찬가지로였다. 아랍 민족주의자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해 버리자 영·프·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침공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 때가 그 지역에 대한 영·프의 영향력을 자신의 영향력으로 대체할 기회다 싶어 UN에게 ‘평화유지군’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그 때의 UN 간섭 이래로 학살 계획안들은 UN에서 조금도 견제당하지 않은 채 차례차례 통과돼 왔다.

인도네시아가 1975년 12월 동티모르를 침공해서 10만 명에서 20여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전체 인구 70만 가운데!)을 학살했을 때 UN은 “개탄”하며 인도네시아에게 그 섬에서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그 뒤 7년 동안 해마다 요청했다. 예고된 살인극이었으므로, 또 UN이 입발림말을 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인도네시아는 들은 척도 안 했다.

UN을 개혁할 수 있을까?

냉전 질서의 해체를 통해 “신UN질서” 따위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진보 진영 내에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바로 걸프 전쟁이 이를 입증했다. 미국의 국무부 관리 하나가(그의 이름은 익명으로 보도되었다) 말했듯이, “우리가 UN의 덮개 아래서 움직일수록 그만큼 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무기를 이송중인 유엔

사실이 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창립 대회는 국제연합(UN)의 전신인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을 “자본가들의 신성동맹”이며 “약탈과 착취와 제국주의 반혁명의 연합”이라고 묘사했다.

볼셰비키는 그런 기구들에 적대적이었으므로 그런 것들에 반대하는 것을 코민테른 가입 조건 가운데 하나로서 명시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소속되고자 하는 정당은 모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애국주의뿐 아니라 사회 평화주의의 불성실성과 위선의 가면을 벗겨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럼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를 혁명으로 전복하지 않고는 국제 중재 법원 따위가, 군비 축소 회담 따위가, 국제연맹의 ‘민주적’ 재조직 따위가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UN이란 그 회원국 모두가 손에 피를 묻힌 기구이다. 그 자들의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대중 항쟁이다.

UN 외교가 아니라 대중 항의 운동이 베트남 전쟁을 끝냈다.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것만이 끝낼 것이다. 다른 어느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전쟁을 반대하는 주장들

“미국은 테러를 빙자한 전쟁을 즉시 중단하라”

홍근수/양림교회 목사

전 세계의 지성과 양심은 전무후무한 테러 피해를 입은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전쟁을 자제할 것을 간절히 염원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7일 미국은 마침내 ‘21세기 첫 전쟁’의 폭음을 울리기 시작해 소위 ‘테러 보복’ 전쟁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

먼저 이번 참사로 비명에 간 억울한 많은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보내고 그들의 명복을 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오열하는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내리기를 간절히 빈다.

우리는 이번 동시다발 테러에 여러 특징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지금까지 가해자의 위치에서 힘없는 나라의 양민들을 무차별 학살해 왔던 미국이 처음으로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금까지 테러나 전쟁은 미국 밖에서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미국 본토, 그것도 미국의 심장부에서 일어났다. 셋째는 미국과 전 세계가 한 패가 되어 빈 라덴이라는 한 개인과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빈 라덴은 파나마의 노리에가처럼 미국이 여태껏 지원하고 성장시킨 인물이다.

또 이번 테러는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와 군사주의 이념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무적이라고 믿었던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이 테러 앞에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천문학적 돈과 기계공학의 최신 지식과 기술을 쏟아부어 개발한 최신 무기 등이 이 테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번 테러 사건의 중요한 교훈은 군사력과 자본이 국가의 안전이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테러 직후 ‘모든 형태의 테러를 퇴치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축하자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전 세계적인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유엔과 나토, 다른 서방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잠재적인 적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테러를 당한 미국을 동정·지지하고 모든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나왔다. 그러나 미국이 빈 라덴을 인도하라는 요구 조건을 내걸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공동체

가 동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미국은 보복전쟁에 참가하는 국가를 미국 편으로 이에 참가하지 않는 나라들을 테러리스트 편으로 구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에 상하 양원 합동회의 석상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테러리스트 편에 서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또 다른 테러인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어찌 테러리스트 편이란 말인가? 테러는 반대하지만, 미국의 군사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과 개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들을 모두 테러리스트편이라고 모는 것은 냉전 시대애나 어울릴 흑백논리다.

동·서 냉전체제로 이념적인 갈등을 통해 이 세계를 공포와 힘의 균형으로 지배해 왔던 20세기는 붕괴했다. 인류는 새로 맞이한 21세기가 평화의 세기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테러를 이유로 새로운 종류의 냉전을 시작하려는 듯해 우리는 더욱 불안하다.

미국은 보복 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무리 악성 테러로 미국이 초강대국의 체면이 손상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보복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또 하나의 국가 테러 행위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밀한 폭격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을 최소화한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전쟁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

만일 미국이 테러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계속한다면 또 다른 피의 테러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는 끝없는 테러와 피의 응징의 악순환을 부를 뿐이기에 우리는 미국이 제발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무덤 속으로 몰아 넣을 전쟁 놀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미국 시민은 “테러 직후에는 폭탄을 투하해서라도 테러분자를 제거하라고 요구했지만, 지금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지금 평화를 선호하



는 미국인들은 물론 여타 세계인들은 점점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날로 그 수도 늘고 있다.

미국은 이번 끔찍한 테러 참사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미국이 군사적·경제적 힘만 믿고 강경 일변도의 힘의 외교로 일관하다가 자초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인간의 정신적·도덕적·평화적 노력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기보다 오히려 군사적인 힘만 믿고 설치며 오만한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 테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동안 미국은 수많은 양민들을 죽였고 세계를 울음 바다로 만들어 왔다. 미국은 과거에 한국·베트남·라오스·그레나다·엘살바도르 등에서, 최근에는 걸프만·코소보·수단·아프카니스탄 등에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으며 그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다. 이번 동시다발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의 생명은 매우 귀중하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자신이 그 동안 학살해 왔던 생명들과 이번 대아프카니스탄 폭격으로 희생되고 있는 생명들도 고귀한 생명들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그 동안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간 테러 감행을 '회개' 해야 한다.

미국이 이번 테러를 빌미로 보복 전쟁을 감행한 것은 단극체제 구축을 더욱 확고히 해 미국에 도전하는 그 어떤 나라나 세력도 제압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렇지

않다면 전 세계 공동체가 반대하고 있는 보복 전쟁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초상난 집 같은 미국을 비난하거나 욕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동시다발 테러를 잘 수습하지 않고 군사적 보복을 계속하게 되면 이 세계는 건잡을 수 없는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그 때에는 미국도 진퇴유곡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패배해 철수한 것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하고 물러났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확산돼 가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군사적 힘만 믿고 큰 소리 치며 무력 행사로 일관하는 '카우 보이'나 '총잡이'로 묘사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지성과 양심의 대아프카니스탄 전쟁 중단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전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덤 앞에 꽃을 바치는 심정으로 말한다. 이번 미중유의 테러를 당한 미국이 군사적인 보복보다 겸허하게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미국은 대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해 온 지금까지의 정책을 회개하고 앞으로 전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만들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라. 

“테러와의 전쟁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의 눈가림용이다”

이마드 앳단 싸우아르(명지대 아랍어과 교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정당한 군사적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이 사건을 아랍인들에 의한 테러라 단정하고 이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수사 결과 미국인이 저지른 범죄로 드러나자 보복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맡겼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명확한 증거 제시도 없이 오사마 빈 라덴을 9월 11일 테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전면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국제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이번의 미국 공습처럼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반테러 전쟁이라는 허울좋은 이름 아래에 반대 세력을 공공연히 무력 응징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터시아 - 체첸, 인도 - 카슈미르, 중국 - 이슬람 분리운동 세력 등).

미국은 이 반테러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주변국에 수십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밀린 UN 할당금을 완납하였다. 이런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대한 눈가림용이다. 테러와의 전쟁이 국제 기구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런 비용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덧붙여 현재 미국 편에 선 국가들은 테러와

의 전쟁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전쟁이 지속된다면 국제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이 전쟁을 반테러 전쟁이 아닌 반이슬람 전쟁이라 여기고 있다. 실제로 부시는 이 전쟁을 (이후 사과했지만)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인들의 반미 테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미국 내뿐 아니라 아랍 국가 내의 반정부 활동이 늘어날 것이며, 미국과 서방 군사시설이나 공관에 대한 테러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아랍 국가 내 테러주의자들과의 전쟁을 치뤄야 하고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예로부터 미국의 대외 정책은 자국에 이익이 되는 지역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또한 분쟁 지역에 개입하고도 분쟁의 위험을 근절하지 않고 오히려 불씨를 남겨둠으로써 그 지역에 미국 군대를 계속 주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당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위협 세력으로부터 중동 보호'라는 구실을 만들어 두고는 중동 석유 확보라는 실리 추구를 위해 그를 제거하지 않은 채 전쟁을 끝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은 역시 분쟁의 근원을 남겨둔 채 그것을 빌미로 계속 개입해 중앙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 기지가 없는 중앙 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호기를 만난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전쟁을 종전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이끌어 전쟁 재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은 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수립에 대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랍인들은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이 국제적 분쟁

에서 공정한 입장에 서 줄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아랍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군사·정치적으로 지원하며 아랍의 고충을 무시해 오지 않았는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사살과 미국에서의 테러와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 왜 미국은 수십년 동안 자행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테러는 눈감아 주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반발은 테러라 규정하는가?

그뿐 아니다. 미국은 중동의 부패한 왕정과 군부를 지원하고, 중동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것을 저지해 왔다. 미국은 아랍 정치의 부패와 분열을 조장해 왔다. 그 한 예로 1994년 알제리 자유선거에서 이슬람당이 승리하자, 프랑스와 미국이 개입하여 선거를 무효화했다. 또한 대부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메스컴을 통해 아랍 민족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

끝으로, 중동 문제와 테러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다음의 것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 미국의 중동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중동 국가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정착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민간인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덧붙여,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들의 사고 변화를 실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아직 한국 사회에 깔린 아랍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많이 있지만, 이 테러의 배후와 동기를 알고자 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노력들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미국 테러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젊은이들이 중동 문제와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멀지만 가까운 이웃으로서 아랍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미국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에 대한 응답

세계적 책무를 다하는 과학자들

(Scientists of Global Responsibility : SGR) 조정위원회 성명서

사이트 : www.sgr.org.uk

2001년 9월 11일

SGR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SGR은 이번 테러 공격을 무



조건적으로 비난하며, 범인들을 색출해 법정에 세우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SGR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전 세계 안보와 불평등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내야 하며 언론들이 이 문제에 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의 대응

미국 정부가 이번 공격에 분노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 정부는 테러 행위를 '전쟁'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는 아프가니스탄의 소위 범인들에게 군사적 보복을 하기 위한 심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SGR은 이러한 행동이 긴장 상황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더욱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십자포화'를 맞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미 서방의 원조 기구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내전과 계속된 가뭄으로 생겨난 피난민들을 버려두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국의 위협으로 조성된 상황은 이미 이 지역에 상당한 고통을 더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유엔의 원조 기구들이 보유한 식량은 이미 3주치밖에 안 남았다. SGR은 유럽 각국에게 미국의 성급한 행동을 말려 달라고 촉구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들'

이번 테러 공격을 더 넓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은 대략 연간 1조 달러에 달한다. 반면 전 세계적 불평등도 증가해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빈곤 상태에서 살아간다. 전 세계를 결코 안전하게 만들 수 없는 이런 군비 지출은 대략 14만 명을 죽게 만든 1991년 방글라데시의 홍수나 3만 명을 죽게 만든 1998년 베네수엘라의 산사태처럼 점차 증가하는 자연 재해에 투입되는 훨씬 더 작은 액수의 돈과 비교해 봐야 한다.

이런 현실은 세계의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길 뿐이다. 세계 무역센터는 이런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물리적 상징이었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선발된 대상에 한해서만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몇몇 아랍 국가들은 비난했지만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미국이 이란-이라크 전쟁 때는 이라크에게, 소련에 대항한 전쟁 때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게 무기를 공급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미국의 명백한 이중 잣대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미사일 방어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9월 11일의 테러 공격과 미국에 대한 다른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GR을 포함하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이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강패 국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미국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SGR은 전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계적인 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테러에 이용되는 생화학 및 핵융합 물질

이번 사태는 테러 위협의 영향력과 예측 불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테러리스트들은 생화학 물질이나 핵 물질을 이용하여 위협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그럴 지도 모른다. SGR은 모든 국가, 특히 미국에게 올해 생화학 무기 조약의 강력한 집행 체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대한 조치들을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협상들이 실패했지만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 준 상업적 관심이 장애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소련이 붕괴한 뒤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융합 물질의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남아공 같은 나라조차 자신들이 만든 모든 핵융합 물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시인한다.

1991년에 핵무기에 반대하는 과학자들(Scientists Against Nuclear Arms)(SGR의 전신)은 재처리된 핵연료가 무기 재료로 전환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저명한 핵과학자 프랭크 버나비는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SGR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핵융합 물질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연료의 재처리를 제한하거나 재빨리 중단시키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1970년대에 핵연료의 재처리를 중단시킨 미국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탄 테로 쏠리고 있는 사이에 셀라필드 모크 공장을 승인하려는 영국의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 이 계획은 훨씬 더 위험한 플루토늄을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탈취할 수 있게 할 위험이 있으며, 완전히 불필요하고 위험한 전 세계 플루토늄 수송망(항공편 수송 포함)도 필요하게 만든다. 최근의 테러 공격은 핵 발전소 자체가 테러리스트의 목표가 되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 — 파키스탄과 인도 — 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핵무기가 극단적인 집단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

이번 테러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테러리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 범인들을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국가간 협력을 증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행동을 낳는 원인들 — 종교적·문화적 편협함,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 을 줄이는 주요 조치들을 취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21세기 벽두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주요한 주제는 테러리즘의 결과에 보복하는 부정확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테러리즘을 낳는 이러한 근본 원인들이다.



마르크스주의를 배웁시다

전쟁에 대한 사회 변혁가들의 태도

부시의 폭격과 그것이 빚고 있는 끔찍한 결과들은 21세기가 지난 세기가 시작됐을 때의 모습 — 전쟁으로 점철된 모습 — 그대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1세기는 평화와 번영의 신세벽에 관한 세계 제국 지도자들의 약속과 함께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야만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 1백 년 내내 우리는 전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불구자가 되고 정신이 파괴당하는 것을 봐 왔다. 전쟁의 부산물 — 질병, 굶주림, 대규모 피난 — 때문에도 수백만 명이 죽었다.

매번 세계의 열강들과 언론의 전쟁광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숭고하다고 설명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쟁이 독재와 악에 맞서고 민주주의와 해방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왔다. 전쟁의 이유는 시기에 따라 바뀌어 왔다. 그러나 열강은 매번 전쟁의 진짜 동기 — 지구를 분할해 이윤을 얻기 위한 세계 지배자들의 권력과 지배 — 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전쟁 때마다 각국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보통의 노동계급 병사들을 보내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게 했다.

전쟁의 원인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호전적인 사회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대군도 베트남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에는 훨씬 못 미친다. 중세의 십자군이 사용했던 어떤 무기도 일

주일 안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현대의 폭탄은 단 몇 초만에 끝내 버릴 수 있다.

자본주의는 피를 뚝뚝 흘리며 태어났고, 나이를 먹을수록 대량 학살에 대한 욕구도 점점 더 커졌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식민지, 금, 노예, 석유, 아편, 값싼 노동력, “전략적 이점” 등을 위해 전쟁을 낳았다.

전쟁은 단지 지배자들의 개인적 야망과 탐욕의 산물이 아니다. 자본가들은 그들 사이의 경쟁 때문에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의 동력인 경쟁, 곧 생산 시설과 은행과 운송 수단을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축적하려는 동기가 전쟁의 진정한 원인이다.

이것은 평화스런 과정이 아니다. 경쟁자들이 파산하고 살아 남은 기업들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군사 기구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19세기 말이 되자 자본주의적 경쟁이 일차적으로 경제 경쟁으로 표현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가장 강력한 지배계급들이 영향력 확대와 시장과 식민지 지배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됨에 따라, 경쟁에는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체제를 제국주의라 부른다. 세계가 경쟁하는 열강들 사이에서 분할·재분할되면서 제국주의가 20세기의 운명을 지배해 왔다.

야만의 시대

20세기는 역사상 가장 유혈낭자했던 시기다. 자본주의는 시장과 자원을 위한 경쟁과 나란히

살인 기술과 무기를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량파괴 무기들이 이제 수백만 명을 살상했다. 탱크와 기관총, 독가스와 전투기가 등장함으로써 사망자의 대다수가 질병이 아니라 상대국 병사들의 손에 희생되었다. 이것은 제1차세계대전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이었다.

1914~1918년間に 벌어졌던 제1차세계대전은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영국은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했고,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의 절반을 지배했다.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던 독일 지배계급은 식민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더 가지기를 원했다. 영국 정부는 죄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참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통의 사람들을 납득시킬 때만 그들의 전쟁을 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국 정부는 독일 지배계급과 군대를 악마로 보이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다.

언론은 독일 병사들이 벨기에에서 수녀들을 강간하고 어린이들의 손발을 잘랐다는 거짓말을 했다. 주미 영국 대사를 지낸 적이 있었던 브라이스 경이 이끄는 변호사와 “역사기”들의 위원회는 당시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백 년 동안 문명 국가들 사이의 어떤 전쟁도 규모 면에서 벨기에의 대부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정욕·약탈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었다.

나중의 조사는 단 한 가지의 일화도 입증할 수 없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건들을 목격하지 못한 익명의 벨기에 난민들의 진술과 내무부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서류들에 근거하고 있었다. 동시에 영국 정부는 죽은 부대의 사진들, 패배와 참호의 현실에 관한 뉴스들을 검열했다.

제1차세계대전으로 1천만 명이 죽었다.

승리한 열강들 — 영국·프랑스·미국 — 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선언했다. 그들은 제1차세계 대전이 전쟁 자체를 없애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무렵에 주요 열강들은 몸의 먼지를 털어낸 뒤 이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세계 각

대국들의 경제적 경쟁을 강화했다.

20년만에 세계는 1939~1945년間に 벌어진 제2차세계대전으로 다시 한 번,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갈갈이 찢겼다.

오늘날 제2차세계대전은 독일 파시즘과 히틀러 독재에 대항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의 병사들은 정말로 히틀러와 나찌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 전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의 지배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싸웠다. 영국 지배계급은 특히 중동과 극동에서 영국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싸웠다.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열강이 되고자 했고, 태평양을 두고 벌인 일본 지배계급과의 경쟁에서 싸워 이기고자 했다. 일본 지배자들은 석유 공급을 위해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 동남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고자 했다.

2차대전의 결과 5천만 명이 죽었다.

열강들이 나찌를 물리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왜 그들은 가스실로 가는 철도를 폭파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피해 다른 유럽 나라들로 피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가?

제2차세계대전의 종말을 이룬 사건들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패색이 짙은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이 막 항복할 참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냉전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은 냉전기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옛 소련과 서방의 경쟁은 더 많은 전쟁을 불렀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만에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했고, 좌파에 속하는 인물은 가리지 않고 마녀사냥하는 맥카시 시대로 들어갔다.

한국전쟁은 실제로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민중 모두를 희생시켜 가면서 벌인 한 차례의 피어린 열전이었다. 미국은 한국에서 용단 폭격과 화학무기인 네이팜 탄을 사용했다. 2백만 명 가량의 민간인이 학살당했고, 10만 명의 고아가 생겨났다.

처음에 군사 당국은 검열 도입을 서두르지 않



았다. 그래서 동요하고 있던 한 미군 병사의 다음과 같은 말이 보도됐다.

당신네 기자들은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선 싸워야 할 적이 없다는 것, 이 전쟁은 완전히 무의미한 전쟁이라는 것을 당신네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군부는 유엔 사령관들이 내린 결정이나 연합군 병사들이 전장에서 자행한 행위들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전환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

다시금 미국은 그 전쟁이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간인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문명”의 이름으로 제2차세계대전기를 통틀어 사용한 것보다도 더 많은 폭탄을 베트남에 떨어뜨렸다. 미국은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폭탄을 퍼부었고 들과 마을에 네이팜탄과 고엽제를 뿌려댔다.

베트남에서 1백만 명이 죽었다. 미국이 캄보디아로 전쟁을 확대하면서 또다시 1백만 명이 죽었다. 약 5만 5천 명의 미군이 죽었다.

신세계?

1989년에 냉전이 끝나자 서방 지도자들은 다시 진보와 평화의 신세계를 약속했다.

그러나 1년 만에 그들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새로운 히틀러”라고 선언했다. 언론은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쿠웨이트에서 비행기 여승무원을 강간하고 병원 인큐베이터 속의 아기들을 찢어 죽였다는 일화들을 토해 냈다.

오직 한줌의 사람들만이 이런 일화들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중에 그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진짜 어린이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들은 연합군의 폭격 때문에 죽었다. 최근 유엔은 경제 체제로 매달 6천 명의 이라크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인정했다.

아기들이 영양실조로 죽고 있고 노인들과 병자들을 돌볼 수 없고 노숙자들과 빈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자원은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군수 산업에 낭비되고 있다.

20세기에는 끔찍한 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리고 21세기에 그 야만의 순환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거짓말로 이어지고 있다. 매번 세계의 통치자들과 언론은 학살을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흔히 그 때의 학살을 옹호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인, 역사가, 군 장성들은 제1차세계대전이 무의미했다고 말한다. 베트남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1991년 제2차 걸프 전쟁이 석유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에 정부와 언론은 그러한 전쟁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전쟁 열기를 부채질했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투쟁

전쟁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지금 당장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전쟁의 끔찍한 순환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매번 정부와 언론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추켜 세웠지만 일단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면 야멸차게 버렸다.

제1차세계대전에 참전한 수많은 병사들이 참호에서 돌아와 실업자가 되거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베트남 전쟁의 예비역 병사들은 혈어빠진 병원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는 신세로 방치됐다. 오늘날에는 제2차 걸프 전쟁 중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시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전쟁을 낳는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전쟁에 대한 혐오도 낳는다.

전쟁은 초기에 더러 대중의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전쟁의 비극적 참상은 결국은 사회 내의 모든 계급 갈등을 격화시키기 마련이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형편없는 임금에 반대하는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사병들은 적진의 병사들을 친구이자 동맹자로 보고, 더 많은 죽음을 요구하는 정부와 장교들을 자신들의 공통의 적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그래서 전쟁은 흔히 거대한 사회 변혁으로 이

어지곤 한다. 제1차세계대전은 1917년의 위대한 러시아 혁명을 탄생시켰다. 게다가 1차대전을 실제로 끝장낸 것은 1918~19년의 독일 혁명이었다. 1905년의 제1차 러시아 혁명은 러일전쟁이 초래한 위기 때문에 터졌다.

그리고 2차대전에 뒤이어 유럽과 아시아 전체에서 반란이 물밀 듯이 일어났고, 세계 전역에 파병된 수십만 사병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군 사병들의 불만이 엄청났다. 전쟁 막바지에는 베트남군 손에 죽은 미군 장교의 숫자보다 사병들 손에 죽은 장교의 숫자가 더 많은 실정이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베트남 전쟁은 한 세대를 급진화시켰다.

또, 베트남 전쟁기간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의 거대한 반전 시위와 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이 거둔 승리는 미 제국주의를 20년 동안이나 크게 약화시켰다. 미국 지배자들은 함부로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없었다. 베트남전에서 세계 최대 열강인 미국을 패배시킨 영웅적 희생이 니카라과나 이란과 같은 다른 제3세계 국가의 수만의 목숨을 구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의 야만적인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한 반대를 전쟁을 낳는 체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투쟁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도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편견

김인식

서방 지배자들과 언론들은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이 ‘이슬람과 서방’의 충돌로 대체됐다고 주장해 왔다. 1980년대에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이슬람을 당시 소련과 함께 세계를 위협하는 최대의 ‘악’으로 규정했다.

서방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슬람을 본질적으로 편협하고 폭력적인 종교라고 비난한다. <뉴스위크>(2001년 10월 17일치)는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왜 미국을 증오하는가” 하고 물음을 던진 뒤 이렇게 답변했다.

“미국인들은 자유를 지지하고 저들은 자유를 증오한다, 미국인들은 부자이고 저들은 미국의 부를 시기한다, 미국은 강하고 저들은 미국의 힘을 증오한다. …그러나 빈곤과 질투심보다 더 강한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 살인과 동시에 자살을 부추기는 것은 …바로 종교다.”

모순된 이해 관계

판에 박힌 반이슬람 선동은 이슬람이 서로 다른 계급들의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주요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은 매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모순된 신앙의 구원체다. 예컨대, 기독교는 “해방 신학”의 이름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급 불평등과 미국이 후원한 독재 정부와 맞서 싸웠다. 그러나, 기독교는 미국 권력과 자본주의와 독재 정부를 지지하기도 한다.

이슬람도 마찬가지다. 사회 억압에 반대하는 꾸란의 모호한 교리는 깊은 좌절감에 대한 출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슬람 정치 운동의 성장은 세계 질서로부터 배제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의 산물이다.

예컨대, 이슬람의 기치 아래 일어난 두 번의 위대한 봉기 — 1979년 이란 혁명과 1980년대 옛 소련의 침공에 맞선 아프가니스탄인들의 항쟁 — 는 이집트·알제리·팔레스타인 점령지 등의 반정부 투쟁과 반제국주의 운동에 영감을 줬다.(이 봉기들은 서방 지배자들을 전율에 빠뜨렸고, 이슬람을 마녀사냥하는 계기가 됐다.)

이란 혁명은 독재자 팔레비 국왕과 그를 후원한 미국에 대한 사무친 반감의 폭발이었다. 팔레비의 전체적 통치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을 적대자로 만들었다. 이슬람은 팔레비의 전체적 통치를 통렬하게 비난했다. 그 때문에 이슬람은 공동의 적에 맞선 다양한 사회 집단들의 구심 노릇을 할 수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친소 정권이 스탈린주의적 방식의 급속한 ‘근대화’ 계획을 실시하려 하자 매우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저항했다. 친소 통치자가 죽자 또 다른 인물을 권좌에 앉히기 위해 옛 소련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 때 이슬람은 다시 한 번 저항의 슬로건으로 등장했다.(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이 잡지의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오.)

그러나, 이슬람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슬람의 급진적 요소들은 약화됐

다. 이슬람 정권들은 기꺼이 이슬람 자본가들과 협력했고 내부의 반대파들을 혹독하게 탄압했다. 1979년 이란의 국왕 팔레비가 대중 파업과 무장 봉기와 군대 반란으로 전복되자, 각자 자기 식대로 이슬람 교리를 이해했던 다양한 집단들은 매우 다른 실천적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이슬람과 세속 집단 사이에, 그리고 상이한 이슬람 교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다. 결국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추종자들이 승리했다.(‘아야톨라’는 시아파 무슬림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호칭이다.) 이들은 패배한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숙청했고, 종교의 이름으로 억압과 테러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이것은 반혁명이었다.

서방에 맞서 이슬람이 하나로 단결해 있지도 않다. 대부분의 이슬람 정권들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었다. 또, 1980년대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전쟁은 이라크의 이슬람 정부와 이란의 이슬람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미국은 결정적 순간에 이라크를 지지했다.(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단의 핫산 알투라비 이슬람 정권도 이라크를 지지했다.)

이런 모순은 이슬람 자체에 내재된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사람들이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의 설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었지만, 부자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무함마드는 자비의 이름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화해시키려 했다.

이슬람과 폭력

무력과 강제에 의한 이슬람 개종을 가리키는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이라는 말이나, “참수형·투석형·손목 절단형” 등이 명시돼 있는 샤리아(이슬람 율법) 등은 이슬람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세 이슬람의 출현 배경과 과정을 보면 이것이 매우 편협한 시각임을 알

수 있다.

7세기 초 예언자 무함마드의 신도들은 역사적 문명의 땅인 중동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무함마드 사후, 칼리프(무슬림 통치자)였던 아부 바크르와 오마르가 이끈 아랍 군대는 두 제국의 도시들을 차례로 함락시켰다. 무함마드의 제국은 비잔틴 제국과 사산 페르시아 왕조의 위기 덕분에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슬람 군대는 낡은 제국의 지배자들에 대한 대중의 엄청난 반발 덕분에 승리했다. 도시 주민 가운데 다수였던 유대인들과 ‘정통’ 기독교인들은 아랍 군대를 환영했다. 무슬림 정복자들이 새로운 국가 구조를 만들지도 않았고, 주민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지도 않았던 초기에는 특히 그랬다.

처음에 무슬림 정복자들은 낡은 행정 기구를 대부분 그대로 두었고, 기독교인·유대인·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인 등의 신앙을 존중했다. 무슬림 정복자들은 단지 정규적인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국가와 무슬림의 지배에 계속 저항한 귀족들의 토지를 압류했을 뿐이었다. 주민 대중은 옛 제국들보다 덜한 억압을 받았다.

한 유대인 작가는 “조물주는 인간을 악에서 구하시려고 이스마엘[즉 아랍] 왕국을 주셨다.”고 말했고, 시리아의 한 기독교 역사가는 “하느님은 아랍인을 사용해 우리를 로마인들에게서 해방시키셨고 …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보인 만행과 격심한 증오에서 구하셨습니다.”고 말했다.

이슬람을 다루는 역사가 버나드 루이스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지도자의 통치보다는 이슬람 지도자의 통치 아래서 소수 종교 신자들의 삶이 더 풍요로웠다고 지적했다. (《중동의 역사》, 까치 출판사).

무함마드의 설교는 아랍의 농민과 도시민이 믿은 기독교·유대교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당대의 기독교와는 달리, 이슬람은 단지 신앙과 도덕적 규범만을 설교하지 않았다. 무함마드의 설교는 사회 개혁을 위한 정치 강령이기도 했다. 무함마드는 전쟁의 파괴, 두 제국의 수탈 등으로 말미암은 대중의 가난과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 했다. 무함마드는 단일한 법전에 근거한 공동체(움마: Ummah) 건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때문에 무함마드는 메카의 지배자 가문들의 미움을 받았고, 신도들을 이끌고 메디나로 망명(헤지라)해야 했다.

한편, 서방 지배자들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고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자른다”고 명시돼 있는 샤리아가 이슬람의 야만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와 샤리아는 인도적이고 문명화된 가치와 반대되는 야만주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이다.

9세기와 10세기에 이 법전들은 제국의 관료와 지주 귀족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상인과 수공 기술자의 가치관을 부분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것은 서유럽에서 발전하고 있던 봉건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제국인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의 현



실과도 선명하게 대비됐다.

사실, 중세 이슬람은 야만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암흑기 유럽뿐 아니라 정제된 비잔틴 제국과도 뚜렷하게 대비됐다. 특히 8세기 중엽 압바스 혁명은 1백여 년 동안의 경제 성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혔다. 생산·기술 혁신·예술 기법·과학 지식 등이 발달했다.

메소포타미아와 나일 강 유역은 밀, 보리, 쌀, 대추야자, 올리브를 생산하면서 번영을 누렸다. 제국의 무역량은 방대했다. 무역의 범위는 동쪽으로는 인도 동부와 중국까지, 서쪽으로는 러시아와 아프리카와 서유럽에까지 이르렀다.

무역의 확대와 함께 일종의 은행 제도도 출현했다. 수공 기술자에 기반을 두고 공업도 번창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상층의 부유한 사업가, 곡물상, 장세 대행인, 수입상 등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인도의 수학 발전은 아랍 학문의 한 토대가 됐고, 아랍 학문은 수백 년 뒤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한 핵심적인 동력이 됐다. 이것은 압바스 혁명이 지주와 장군만큼이나 상인과 장인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며 대서양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지역을 통일시켰기 때문이다.

이슬람과 테러

서방 정부와 언론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슬람을 비이성적 폭력과 동일하게 취급했다. 그러나 이슬람과 테러는 동의어가 아니다. “본래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이슬람 부흥 운동(소위 이슬람 근본주의)은 이슬람 사회의 세속적 타락을 반대하고 꾸란과 샤리아에 기초한 초기의 이슬람 공동체(움마)를 건설하려 한다. 이 운동은 북부 아프리카, 인도 대륙, 인도네시아, 동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에 퍼져 있다. 그와 동시에 중동에 집중돼 있다. 그 이유를 찾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알제리, 시리아, 파키스탄 등의 지배자들은 스스로 계급이나 신분 차별이 없는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독실한 무슬림이라고 주장한다. 그들 뒤에는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버티고 있

다. 수백만 중동인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는 미국에 매우 격분한다.

대중의 극심한 고통만이 급진적 이슬람 운동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그것은 또한 집단 행동을 통해 고통을 끝장낼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절망감을 반영한다. 한때 중동에도 거대한 대중 운동이 존재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민적 반란의 물결이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끌어냈다. 그러나, 중동의 지도자들은 재빨리 세계체제와 평화적 관계를 수립했고, 급진적 사회 변화를 막기 위해 총부리를 대중에게로 돌렸다.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은 1960년대에 요르단과 레바논의 난민촌에서 성장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대중 투쟁이 벌어졌다. 팔레스타인의 투쟁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부패한 아랍 정권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전환점은 1970년 9월이었다(“검은 9월”). 요르단 군대가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했다. 조직 노동계급의 주도성 결여는 이런 운동들의 한계를 의미했다. 팔레스타인 전사들은 고립되기 시작했다. 일부는 절망에 빠져 안타깝게도 개인적 테러를 대안으로 여겼다.

민족주의 운동의 실패는 정치적 이슬람 운동의 전열 정비에 문을 열어 줬다. 1970년대에 정치적 이슬람 운동이 성장했다. 이 운동 가운데 일부는 대중적 성격을 띠기도 했다(예컨대 알제리). 그러나 그들이 정권을 마비시킬 수 있는 도시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자 무지막지한 국가 탄압이 뒤따랐다.

중동 전역에 걸쳐 미국 제국주의와 부패한 정권들에 분개한 소규모 세력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은 대중으로부터 얼마간의 수동적 지지를 얻기도 했지만 대체로 대중으로부터 고립됐다. 이들은 노동 계급이나 농민이 아닌 사회 계층으로부터 충원됐다. 대체로 대학에 다니기는 했지만 교육이 어떤 전망도 제시해 주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 점

령군과, 체첸에서 러시아 점령군과,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세르비아 군대와,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싸우러 갔다. 서방은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눈 감아 버렸다.

테러 행동은 세계 체제가 보통의 중동인들에게 강요한 고통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다. 동시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서 대중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지배자들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고통을 안겨 줬다. 더욱이 지배자들이 권력을 강화할 빌미를 제공했다. 테러리즘은 절망적인 방법이었다.

이슬람과 여성 억압

탈레반의 여성 억압 정책이나 아랍 여성들의 히잡(베일) 착용은 이슬람이 여성 억압적인 종교라는 점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서방의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이슬람 근본주의가 여성 해방의 최대 위협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심지어 부시의 전쟁이 탈레반의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사실, 탈레반의 여성 정책은 종교의 논리적 결과라기보다는 탈레반이 등장했던 사회의 후진성과 내전의 충격을 반영한다. 여느 게릴라들과 마찬가지로, 탈레반은 전투 부대에서 여러 해를 보낸 남성들로 구성돼 있었다. 탈레반 지도자들은 탈레반 병사들이 전에 무자헤딘이 도시를 장악했을 때처럼 행동할까 봐 두려워했다. 무자헤딘은 여성 학대와 강간으로 악명 높았다. 그래서 탈레반 지도자들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공공 생활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했다. 물론 이것은 끔찍한 여성 억압이다.

아랍 여성의 히잡 착용도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지적된다. 1994년 프랑스 정부는 히잡을 착용한 이슬람 출신 여학생들의 등교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인종 차별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의 북아프리카계 이주민 거주지에 수천 명의 경찰을 보내 히잡 착용 여학생들의 등교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이슬람은 어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모호하고 모순돼 있다. 이런 모호함과 모순은 여성의 역할에도 반영된다. 이슬람은 여성이 억압당하는 세계에서 등장했고 여성 억압을 철폐하지 않고 완화하려 했다.

무함마드의 설교는 초기 기독교처럼 도시 여성들에게 일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무함마드의 집단에 속해 있던 여성들의 남편들은 무함마드를 지독히 적대했다.) 무함마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전제하고 있었지만, 여성보다 ‘우월한’ 남성이 여성을 학대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고 설교했으며, 여성이 일정한 재산권을 지니는 것도 허용했다. 이 때문에 이슬람 지지자들은 꾸란이 중세 기독교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꾸란 자체는 여성의 베일 착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여성은 “정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숙”은 이슬람이 정복한 사회들에서는 베일 착용을 뜻했다. 그래서 많은 이슬람 사회는 공공 장소에서 여성들이 머리카락, 어깨, 상박을 드러내는 것(또는 남성들이 옷통을 벗는 것)을 마치 비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이 가슴을 노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여겼다. 이슬람 여성의 히잡 착용은 비잔틴 제국의 유행을 받아들인 것이었다.(머리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떠올려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끔찍한 조건 때문에 현대 세계에서 이슬람은 거대하게 부흥했다. 수백만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중동의 여러 대도시 슬럼가에서 반(半)프롤레타리아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수백만의 교육받은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가망이 없다.

그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 이슬람의 모순된 메시지에 쉽게 이끌린다. 정치적 이슬람은 마치 현세에서 혁명적 변화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인다. 또, 부패한 관행을 없애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강제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적 이슬람은 과거에 대한 보수적 향수(“우리의 전통적

제국주의가 “피조물의 한숨”을 낳았다

인 삶의 방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졌다”)를 자극한다.

남성들만이 이런 메시지에 이끌리는 것은 아니다. 현대 도시의 삶이 가난과 성적 학대만을 강요한다고 믿는 수많은 여성들도 정치적 이슬람 운동에 매력을 느낀다. 이 여성들은 이슬람 법전이 육체의 상품화 압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다. 이슬람 법전이 특정 옷차림을 요구하고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강요하는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중동의 여성들은 이슬람 공동체가 섹스 샵과 은행들의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는 사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부유한 여성이 서구 스타일의 옷을 입고 값비싼 화장을 하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다른 한편에서 가난한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설사로 죽어 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회보다는 이슬람 공동체가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 부흥 운동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미래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슬람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몇 가지 점에서 기독교보다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장할 필요는 없다. 꾸란의 모호한 메시지로 회귀하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능성 —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 여

성과 남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가능성 — 을 실현하는 데 부적절하다.

맺음말

종교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수많은 대중이 겪고 있는 진정한 고통에 위안을 제공해 왔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고통에 맞서 저항과 반란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사회주의자 신부와 혁명가 신자들이 포함된 남미 해방 신학 운동은 이것의 뚜렷한 사례이다. 미국에서 기독교는 인종 차별주의에 대항한 흑인 저항 운동의 수단 노릇을 했다.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제국주의와 자국 지배자들의 억압에 대항하는 한 수단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모든 종교적 관념을 거부한다. 그러나 종교적 관념과 그 운동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진정한 고통의 표현이자 진정한 고통에 맞선 저항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언제나 종교적 외피 속에 가려진 사회적 실재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억압자의 종교와 피억압자의 종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피억압자들이 종교의 기치 아래 자신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울 때 우리는 그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유대 시온주의의 본질

아이작 도이처

[편집자 주] 이 글은 리영희 교수가 번역·출간한 《80년대 국제 정세와 한반도》(동광출판사, 1984)에 실렸던 글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테러 국가 이스라엘 지배자들이 표방하고 있는 시온주의를 설명하는 글을 실는다.

[리영희 교수의 편자 주] 유대인은 평화와 인도주의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정치와 군사를 제외한 모든 인간생활의 분야에서 인류 발전에 남긴 공헌으로 존경과 찬사를 받은 민족이었다. 스피노자·하이네·마르크스·아인슈타인 등의 이름들과 그 밖의 무수한 이름들이 서구 문명사에 영원한 빛을 남겼다. 나찌에게 6백만의 동족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유대인들은 인간의 양심을 구현하는 사회를 지구상에 실현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나안의 성지에 모였다. 그 국가건설에는 소련이 제 1착으로 국가 승인을 할 정도로 전 세계의 동정과 지지가 있었다. 유대인 자신들도 평등·자유·박애·평화의 정신이 꽃피는 키부츠 공동생활체로써 '지상의 낙원'을 위해 땀흘리는 것으로 믿어졌다. 모두가 그렇게 희망했었다. 그러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초부터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적·식민지적 아랍 침략전쟁으로 중동 평화의 화근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인구 3백50만의 이스라엘에게 연전연패의 고배를 마시는 수억의 아랍민족의 수난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유대인 대 팔레스타인 민족·아랍 세계의 분쟁을 모든 측면에서 공정하고 명쾌하게 해부해 주는 아이작 도이처에게서 듣는다. 도이처는 새삼스럽게 소개할 필요도 없는 유대계 시인·사상가·철학자·역사가이자 러시아 혁명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다. 여기 소개한 논문은 그가 사망하기 전인 1968년에 영국의 《옵저버》에 연재한 것이지만 그 분석과 관점은 오히려 오늘에 와서 더욱 탁월함이 입증된다.

중동의 프러시아제국

이스라엘은 프러시아 제국이 지난 세기에 유럽에서 했던 역할을 지금 중동에서 연출하려고 결심한 듯이 보인다. 이것은 역설적이면서 또 불쾌한 현상이다.

이스라엘은 벌써 세 번이나 인근 아랍 국가들을 유린했다. 1세기 전 유럽에서 프러시아는 불과 몇 해 사이에 덴마크·오스트리아·프랑스 등 인접 국가들을 모조리 유린했다. 그들의 연전연승으로 프러시아인은 마음 속에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절대적 자신과, 군사력에 대한 맹목적 신뢰감, 그리고 쇼비니즘(배외적·호전적 애국주의)의 오만함과 타민족에 대한 멸시감을 키웠다. 그와 같은

퇴화 — 그것은 퇴화, 바로 그것이다 — 현상이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 속성이 되는 것 같아 두렵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중동의 프러시아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허약한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프러시아인은 적어도 잇따른 승리를 이용하여 제국의 판도 속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밖에 사는 독일어를 쓰는 민족을 규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다. 독일의 인근 국가들은 상호간 이해·역사·언어·종교 등의 차이로 분열되어 있었다. 비스마르크와 빌헬름 2세, 그리고 히틀러가 이 나라들을 서로 대립·반목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랍 민족 뿐이다. 아랍 국가들을 서로 반목·대립시키려는 시도는 거시적으로 볼 때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스라엘이 아랍과 제1차 전쟁을 치렀던 1948년에는 아랍 국가들은 서로 불화 상태였다. 1956년, 이스라엘이 제2차 전쟁을 감행했을 때 그들의 대립은 다소 완화되어 있었다. 1967년의 제3차 전쟁에서 아랍 국가들은 공동전선을 형성했고(1973년의 제4차 전쟁에서는 나세르의 이집트군에게 초전의 승리를 주어야만 했다), 아랍 민족은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대립에서 훨씬 강력한 단결력을 보일 것이다.

독일 민족은 그들의 체험을 빈정대는 투의 표현에 압축시켰다. “사람은 스스로 사지에 몰아넣어야 비로소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땅을 아랍인들에게서 뜯어냈다. 유대인이 정복한 땅에는 약 1백50만 명의 아랍인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인구의 40 퍼센트를 넘는다. 도대체 이스라엘인들은 점령 지역의 ‘안전’을 위해 이 많은 아랍인을 추방하려는 것인가? 결국 그런 행동은 가뜰이나 골치 아픈, 그리고 훨씬 위험하고 대규모의 새로운 피난민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정복한 땅을 내놓을 것인가? “천만에!”가 거의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김없는 답변이다.

이스라엘의 배외적·맹목적 국가지상주의의 악령인 벤-구리온은 요르단에 대해, ‘아랍-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 그것을 이스라엘의 보호국으로 할 것이라고 우겨댔다. 그는 아랍 민족이 그 따위 보호국 구상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할 권리라도 갖고 있다고 자처하는가? 아랍 민족은 결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국가의 어느 정당도 ‘아랍-이스라엘 복합 민족 국가’ 같은 것을 생각할 김새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수많은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요르단의 정든 집을 놓고 나가도록 하는 강압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점령 지역의 아랍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처우는 20여 년 간 군사통치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내의 아랍 소수 민

족에 대한 처우보다도 훨씬 가혹해졌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틀림없이 패배보다도 나쁜 결과를 이스라엘에 가져올 것이다. 여러 차례의 승리는 이스라엘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아랍 민족의 복수와 유대인 멸종 정책을 이스라엘이 두려워 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환상을 현실의 위협인 양 행동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서구의 책임

현재의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 아니 제1차세계대전 이래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과정의 집약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선택의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젠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청중에게 제기한 일이 있다.

어떤 사나이가 불타고 있는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그 집안에서는 그 사나이의 가족들이 대부분 다 죽어 있었다. 그 사나이만은 요행 살아났지만, 뛰어내렸을 때 그 아래 서 있던 사람을 덮쳐 다리와 팔을 부러지게 했다. 사실 뛰어내린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으로서는 뛰어내린 사람이 자기의 재화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즐겁게 대했다면 서로 원수가 되지 알고 지냈을 것이다. 타는 집에서 도망친 사나이는 정신을 차리는 즉시 자기 때문에 병신이 된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사과했을 것이다. 불행을 당한 사람은 아침 일진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니, 두 사람이 다 별도리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성을 잃고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부상당한 사람은 자기의 재앙을 뛰어내린 사람의 책임으로 비난하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뛰어내린 쪽은 병신된 사람의 복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만날 때마다 그 사나이를 모욕하고 걷어차고, 주먹질을 할 것이다. 이

렇게 당한 쪽은 다시 복수심을 굳히고, 또 얻어맞고, 욕을 본다. 이 대립 관계는 애당초 단순한 우연의 결과였지만 차츰 격화하여, 서로 깨질 줄 모르는 증오심을 불태우면서 끝내는 두 사람의 온 인생을 압담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이스라엘인 청중에게 말한 것이지만)은, 이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주해 와 있는 유럽계 유대인의 생존자를 두고 하는 말을 쉽게 알아차렸을 것이다. 부상당한 사람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 때문에 집과 땅을 잃어버린 1백만 명 이상의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이다. 이들은 원한을 품고 있다. 그들은 국경 너머로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기회만 있으면 당신들을 습격하려 하고, 복수를 다짐한다. 당신들은 그들을 가차없이 때려눕히고, 짓누르고 있다. 당신들은 그들에게, “그런 짓을 하면 이렇게 당한다.”고 혼을 내야 한다고 우겨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전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당신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이겠는가?

아우슈비츠·아이다네크·게토가 상징하는 유럽에서의 유대인의 학대와 학살의 비극은 전적으로 서구의 부르주아 문명이 져야 할 책임이다. 왜냐하면, 나찌는 타락한 체제였지만 어쨌든 서구 문명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서구 세계가 유대인에 대해 저지른 범죄의 보상을 강요당한 것은 아랍 민족이었고 아랍 민족은 여태껏 남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서구는 ‘쟁기는 양심’ 때문에 유대인 이스라엘을 토닥거리기 위해서 아랍인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쉽사리 서구의 거짓 ‘상납금’(탈세자가 후회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국고에 납입하는 돈)으로 매수되고 우롱당하고 있다.

유럽 제국주의의 앞잡이

이스라엘-아랍 두 민족의 정상적 관계는, 만일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그럴 생각이 있



다면, 다시 말해서 불타는 집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로 인한 희생자와 우호관계를 맺고,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만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아랍인들의 불만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순수 유대인 국가’의 전설에 전념하고,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을 추방하면서 체제를 불렀다. 이스라엘 정부는 여태까지 한번도 진지하게 아랍 주민의 원한을 풀어주고 화해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랍 국가들이 먼저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하고, 먼저 정치적으로 항복해 들어오지 않는 한, 1백만 명이 넘는 아랍인 피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은 지금까지 협상 회피를 위한 구실이었다.

아랍-이스라엘 두 민족 사이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것은 수에즈 운하 전쟁(1956년) 때이다. 이스라엘은 후안무치하게도, 그들의 공통의 이권(수에즈 운하)과 이집트를 틀어쥐려고 단발마적 몸부림을 치는, 파산 상태에 있는 낡은 유럽(영·프)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행동했다.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의 주주들의 편을 들 것이 아니었다. 어느 쪽에 명분이 있는가 하는 것은 물을 필요도 없이 명백한 일이었다. 이스라엘은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적으로 악한 쪽에 붙었던 것이다.

아랍 민족주의의 문제점

피상적으로 보면, 아랍-이스라엘의 싸움은 단순히 적대적 두 민족주의의 충돌로서 각자가 자기 정당화와 야망의 달성을 위한 공허한 이론구조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추상적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쌍방이 다같이 무의미한 반동 세력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은 사회적·정치적 현실을 무시한 견해일 수가 있다.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식민지나 반식민지 여러 나라와 지역 민중의 민족주의를, 정복자의

국가 중심주의와 동일한 도의적·정치적 차원에서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자는 역사적 정당성을 지니고 진보적 측면을 갖는 반면, 후자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스라엘과는 달리 아랍의 민족주의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전자에 속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랍측에도 문제는 있다. 착취받고 박해받는 쪽의 민족주의라도 그 전개에 여러 단계가 있고 보면 전적으로 비판에 대한 면책권을 누릴 수는 없다. 어느 단계에서는 진보적인 포부가 지배적이지만 다른 단계에서는 반동적 경향이 표면에 나온다. 독립을 쟁취한 순간부터 민족주의는 혁명적 측면을 버리고 반동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민족혁명의 단계에서조차 민족주의는 오래 비논리적 색채를 띠고, 배타주의, 국가지상주의적 에고이즘, 민족적 우월감 등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랍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보아 적지 않은 장점과 진보적 꿈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속에도 이와 같은 반동적 요소가 있다.

이스라엘-아랍 사이의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특히 1967년 위기에서) 아랍 국가들의 정치사상이나 행동양식에 근본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그들에게는 정치적 대책이 없고, 감정적 자기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으며, 민족주의자의 대중 선동에 좌우되는 흠이 있다. 이 같은 취약성이 아랍 민족의 연전연패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느니 심지어 ‘유대인종을 멸종시킨다!’ 느니 하는 따위의 허장성세 — 그것이 얼마나 빈말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사실은 전쟁할 때마다 드러나는 아랍 국가들의 군사적 미숙 상태로 입증되었다 — 를 일삼아 왔고, 그런 선동가들은 거꾸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배타적·맹목적 애국심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민 대중의 공포심을 난폭한 침략 전쟁으로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그 협박은 아랍 민족 자신의 머리 위에서 폭발하곤 했다.

전쟁이 정책의 연장임은 분명하다. 여태까

지의 아랍-이스라엘 전쟁은 아랍 국가 정권들의 상대적 미숙함을 여지없이 노출시켰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는 단순히 그 선제공격의 탓만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들이 훨씬 현대적인 경제·정치·군사적 조직력을 가진 탓이라 할 것이다. 여태까지의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아랍 땅에 국가를 건설한 이후의, 특히 수에즈 운하 전쟁 이후의 아랍 사회의 발전의 결산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결산서는 아랍측의 엄청난 무능을 입증했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사회·경제구조와 아랍 민족의 정치 감각의 근대화는, 현재의 아랍 체제를 이 상적인 것인 양 과신하고 있는 많은 아랍 국민들이 생각하기보다 훨씬 그 속도가 더디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그 끈덕진 후진성의 뿌리는 물론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다. 하지만 아랍 민족의 이데올로기와 조직방식도 그 자체로서 취약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일국일당 전체체제’, ‘낫세르주의’, ‘언론 자유의 결여’ 등을 두고 하는 말이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대중적 정치 교육과 사회 의식의 계몽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그와 같은 저해 요인의 결과는 여러 수준과 측면에서 느껴진다. 모든 주요 결정은 거의 독재적 ‘지도자’가 혼자 결정하고, 평상시에도 정부 정책의 실시과정에 진정한 국민의 참여가 없고, 아래로부터의 체계적이고 적극적 의식이나 이니셔티브도 없다. 이 상태는 여러 가지 저해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군사적 실패도 그 결과이다.

초기의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로 감행된 이스라엘군의 선제공격은, 만약 이집트군이나 다른 아랍 국가 군대가 통상적으로 각급 장교나 사병층의 자발적 협동의식을 권장하고 있었다면 그토록 철저한 과멸적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군사적 무능은 넓고 깊은 사회적·정치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아랍 국가들이 군대식·관료식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아랍 해방 운동의 정치적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민족주의의 민중 선동은 쉽게 열기를 둔군

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적·민족적 통합을 지향하는 진정한 기구나 분열된 봉건적·반동적 힘에 대한 인민의 군대의 참된 동원을 대치할 수 없는 것이다.

아랍 국가들을 엄습한 여태까지의 위기에 서 한 사람의 ‘지도자’에의 지나친 의존상태가 아랍 국가들의 운명을 사실상 강대국들의 간섭과 외교 홍정의 노리개로 만들어 버렸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거듭 목격했다.

미국의 등장

이스라엘의 ‘기적’ 같은 전쟁 승리들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해묵은 난제들을 더욱 꼬이게 하고, 더 위험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너무도 간단한 승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비극의 시점이었음이 판명될 것이다.

국제 정세적 배경을 살펴보자. 이 전쟁들

은 강대국들간의 힘의 싸움과 그 싸움의 핵심인 세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의 관련에서 생각해야 한다. 지난 여러 해 동안의 미국의 공격주의와 그를 돕는 세력은 정치·사상·경제·군사 등의 면에서 아시아·아프리카의 광대한 지역에서 공세를 폈다. 아랍-이스라엘 전쟁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그와 같은 국제 정세의 움직임에 속하는 사건의 하나로 연출되었다.

중동에서 미국이 ‘앞을 바라보는(진보적)’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수에즈 운하 전쟁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반식민주의’의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외견상, 소련과 손을 잡고 영·불 양국을 중동에서 철수시키도록 행동했다. 미국 정책의 근본 방침은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기인 1940년대 말과 같았다.

미국의 지배층이 낡은 식민지 강국들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밀어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백악관은 ‘식민주의 반대’의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책으로 몇 개의 낡은 제국의 몰락을

거둔 이후, 현지의 혁명세력이나 소련, 또는 그 양자가 차지할지도 모르는 ‘힘의 공백’을 두려워했다.

이때부터 중동에서 영·불의 구식민국의 뒷자리에 미국이 ‘등장’했다. 수에즈전쟁, 그 다음은 이스라엘-아랍 전쟁이 그랬고, 1958년 미국 해병대의 레바논 상륙은 중동, 특히 이라크에서의 혁명의 고조를 가로막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 후에는 미국은 소련의 온건정책을 믿고 중동에 대한 공공연한 직접적 군사 개입을 피하면서 초연한 태도를 취해왔다.

이스라엘의 대외의존성

이스라엘은 물론 자신의 의지로 행동한 것이지만 단순한 미국 정책에만 편승해서 행동한 것은 아니다. 지도자들과 대중은 자기들이 아랍 국가들의 보복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피에 굶주린’ 아랍 민족의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말살하자!”는 선전과 선동이 이스라엘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 넣은 것도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과거



유럽에서 유대인이 겪은 비극을 언제나 기억에 되살리면서, 지금도 원한에 찬 몇 천만의 아랍인 세계 속에 포위되어 고립되어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객들은 아랍측의 격렬한 발언을 이용해 중동에서 제2의 '최종적 해결'(히틀러가 유대인 전멸 정책에 사용한 슬로건)이 시도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유대인에게 불어넣으려 힘써 왔다. 이런 선전가들은 성서의 신화나 유대 역사에 나오는 고대 종교 국가적인 상징을 총동원해 가면서, 시나이 반도, '통곡의 벽'(예루살렘 서쪽 성벽의 일부분으로, 파괴된 솔로몬 신전의 일부라고 믿고 있다), 요르단령, 예리고성(예루살렘 북동쪽)을 향해 돌진했던 옛 이야기의 유대인 조상들의 투쟁심·광포함·광신적 열정의 폭풍을 부채질했다. 현재의 광기와 횡포 속에는 아랍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의 억눌리고 있는 죄책감—아랍 민족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한 짓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또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아랍 민족은 땅을 빼앗기고, 1백만 명이 넘는 난민 문제를 안고, 여러 차례 군사적 패배의 굴욕을 당했다. 아랍 민족의 복수가 두려워서 반광란 상태가 된 이스라엘 국민은, 자기 정부의 기동력이 되고 있는 '원칙'—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해마다 한번씩 아랍 국가들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 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동기와 공포가 어떤 것이든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을 단독으로 감행한 일은 없었고 또 할 수도 없다. 이스라엘이 외부 강대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는 건국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대 정권은 그 집권 정당과의 차이와 관계 없이 한결같이 나라의 생명을 '서구 지향'에 걸어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중동의 서구 '최전선 기지'로 변했다. 따라서 해방을 위해 싸우는 아랍 민족과 제국주의(또는 신식민주의)와의 일대 투쟁 속에 말려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도 또 하나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는 형편 없는 경제적 수지와 그 성장을 해외의 시온주의자(팔레스타인인에 순수 유대인만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주의자)들의 경제 원조, 그 중에서도 미국의 기부와 원조에 의존해 왔다. 이런 송금은 이 신생국가로서는 '위장된 약'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정부의 적자를 처리해 주는 것이었다.

정상적 국가의 경우 적자는 인근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 결제되는 것이 상례이다.

외국으로부터의 그와 같은 형태의 자본 도입은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를 왜곡시켰고, 대규모의 비생산적 부문의 성장과, 이스라엘 국가 자체의 생산이나 소득과 무관한 생활 수준의 상승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아랍 세계에 있으면서 '서방 세력권' 속에 편입되어 갔다.

이스라엘은 식량의 태반을 서방 사회에서 수입한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로 보내는 '기증'이라는 특별 지정된 수입이나 이익금을 재무행정상 면제 취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워싱턴의 재무부는 이스라엘의 재원을 장악하고 역으로 이스라엘 경제는 미국 원조에 의존하게끔 되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정부가 중요한 장기적 국가 정책으로서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무역이나 긴밀한 경제적 제휴, 또는 소련이나 동구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 개선을 고려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다.

타국에의 경제적 의존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의 국내 정책이나 '문화적 모습'에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기부자는 바로 '성지'에서 활약하는 가장 중요한 외국 투자가이다.

미국의 산업·재정의 중심지에 앉아서 스스로 '세속적 기업가'를 자처하고 있는 부유한 유대계 미국인들은 마음 속으로는 자기가 '선민'의 한 사람임을 자부하면서 이스라엘의 보수 세력과 반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유기업 체제를 신봉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기초인 키부츠의 온건 사회주의에 대해서마저 적개심을 가지고 그 억압에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유대교의 랍비(성직

자)를 원조하여 유대민족의 탈무드(유대율법)적 배타주의와 우월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웃 아랍 민족에 대한 적개심의 형태를 취하여 불타오르게 한다.

냉전과 중동문제

냉전은 이스라엘의 반동세력에 큰 구실을 제공하여 아랍 민족에 대한 분쟁을 격화시켰고 명확한 반공주의 입장에 서게 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스탈린의 만년의 정책과 소련 내에서의 반유대운동의 대두, 스란스키·라이크·코스토프 등의 재판으로 나타난 반유대적 의도, 허무맹랑한 종류의 아랍 민족주의까지도 지지하는 소련 정책 등이 이스라엘의 그 같은 태도에 대한 일단의 책임을 저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스탈린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 탄생의 대부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스탈린의 명령으로 공급된 체코슬로바키아계 무기로 1947~1948년까지 영국 점령군 및 아랍 민족과 싸웠다. 유엔에서 이스라엘 공화국을 가장 먼저 승인 투표한 것이 소련 대표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스탈린의 태도 변화는 이스라엘이 친서방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책은 아랍 민족의 단결과 서구 제국들로부터 민족 해방을 지향하는 아랍의 숙원에 대해서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고정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감행해 온 전쟁의 역할이다.

서구 식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랍 민족을 분열과 후진성 속에 묶어놓고 아랍사회 속의 반동적 또는 봉건적 세력들을 부추겨 공화주의와 민족주의적 혁명 세력에 대항시키는 것을 최상의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해결방안—중동연맹

문제는 다시 아랍으로 돌아간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립은 군사적 수단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물론 어느 누구도

는 것은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심분 입증되고도 남았다. 아랍측의 정책은 이스라엘 정부의 어께 너머로 이스라엘 국민, 노동자나 키부츠원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스라엘 국민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되고, 이스라엘도 장차 '중동연맹'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명한 약속과 보장으로써 이스라엘인들의 공포심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배타적·맹목적

애국주의의 광기도 진정되고, 시온주의의 영토 확장주의적 지배 정책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내부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호소에 호응하는 이스라엘의 노동자를 위시한 국민의 수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의 힘의 공간에서 스스로를 단절시켜야 한다. 강대국들의 공간은 중동 지역의 사회적·정치적 발전을 기형화시켜 왔다.

앞서 나는 미국의 세력이 이스라엘의 정책에 현재와 같은 추악한 반동적 성격을 주입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작용을 했는가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러시아의 세력은 그것대로 내용도 없는 슬로건을 공급하여 민심 선동에 열을 올림으로써 아랍인들의 마음을 일그러뜨리는 데 큰 작용을 하는 반면, 모스크바의 에고이즘이나 기회주의는 그들의 실망과 조소를 자아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언제까지나 강대국들의 이기주의적 중동 정책의 공간의 노리개가 되고 있는 한 장래 전망은 암담하다.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다같이 애정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가장 솔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충고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다. 

아랍 국가들이 패전 이후 군대를 재건을 할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 아랍 국가들에게 진실로 당장 필요한 일은 사회적·정치적 조치이며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의 새로운 방책이다. 여태까지의 반이스라엘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이 그 점령 지역을 반환하지 않는 한 협상을 거부할 것이고, 요르단이나 가자 지대의 이스라엘 점령군 정부에 저항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쟁의 재발을 뜻하지는 않는다.

'성전'이나 선제 공격에 의한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을 아랍 민족에게 주는 길이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 문명의 승리를 안겨 줄 것이지만 그 방책의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랍계 경제 구조의 힘찬 현대화가 제1 요건이다.

그리고 낡은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것을 이어받은 제멋대로 그어진 국경선과 분할 통치의 수법 때문에 아직껏 분열 상태에 있는 아랍 민족의 현 상태에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힘겨운 과제는 아랍 세계 내의 진보적 요소가 강화되지 않는 한 그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아랍 민족주의가 해방 세력으로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국제주의적 사상에 의한 훈련과 합리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아랍 민족은 이스라엘과의 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랍측은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생존권을 부정하거나 호전적 언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적 성장, 공업화, 교육의 확장, 더 능률적인 사회 조직화, 더 냉정한 정책 등만이 단순한 인간의 머리의 수나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의 뜨거움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아랍 민족에게 가져다 줄 것이 틀림없다. 아랍 민족 자신이 현실적 우위를 이룩하게 되면 그것으로써 저절로 이스라엘은 제 분수의 틀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중동에서 자신에 어울리는 분별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과업이 하루 이틀에 달성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시간을 요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가장 간단한 해결의 길이기도 하다. 민중을 선동하거나 보복 행위를 일삼거나 전쟁에 호소하거나 하는 일이 얼핏 보기에는 지름길 같으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 하

보복 전쟁을 군사대국화의 기회로

이원계

부시가 보복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일본 지배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위대를 파병하겠다고 나섰다. 고이즈미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구상하여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일본이 전후 폐허에 가까운 상태에서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비용이 매우 적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보호하는 우산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 성장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의 급속한 성장을 두고 '안보의 무임승차'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성장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군사력이 강력하지 않다면 탁월한 경제력조차 온전히 보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애쓰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1991년 1월에 벌어진 제2차 걸프전은 일본의 군비증강 경향을 더욱 부추겼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전체 전쟁비용의 17.5퍼센트에 해당하는 130억 달러를 냈지만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이 일은 일본 지배자들이 자국 군대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현실의 제약을 뼈아프게 확인하는 계기였다.

그 뒤 일본은 국내외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3년 동안 질질 끌어 온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파견법안을 1992년 6월에 통과시켰다. 곧이어 1992년 9월 17일 일본의 자위대는 평화유지군으로서 캄보디아로 파견됐다. 이후 일본은 1993년 5월에 모잠비크, 1994년 자이레, 1996년 콜란고원에 자위대를 보내 그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나갔다.

1997년 9월 "일본 주변 지역의 사태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미·일 신가이드라인이 제정됐고, 1999년에는 평화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헌법조사회가 국회에 만들어졌으며, 유사시 미국의 후방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한 주변 사태법이 제정됐다.

보복전쟁을 기회로

일본은 이번 보복전쟁을 자위대의 본격적인 해외진출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고이즈미는 그 동안의 평화유지군 활동이 분쟁 이후의 수습 과정에 참여하는 한계를 넘어 직접 분쟁 지역에서의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10월 5일 보복공격 지원을 위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은 이 법안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타국의 영해와 영토로까지 크게 넓히려 할 뿐 아니라 미군 지상부대 의료 지원 등을 위해 타국 영토 상륙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고이즈미는 이번 자위대 파병이 비전투 지역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군의 전투 구역일지라도 일본 정부가 '비전투 구역'이라고 판단하면 자위대 파병은 가능하다고 뻔뻔스럽게 말한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군대 파병에 제한을 받던 독일이 자신들의 군사력 확장의 교두보로 발칸 전쟁을 이용했던 선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1999년 독일의 슈뢰더는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무력을 통해서라도 코소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게끔 강요받고 있다."며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뒤 전후 최초로 독일군을 파병했다. 독일이 발칸 전쟁을 이용했듯이 일본은 부시의 전쟁을 제국주의적 개입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 경쟁체제

지금 일본이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으로 나아가려는 이유는 더 이상 단순히 '무역국가'

로는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비군사적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군사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냉전 이후 다국화된 세계 자본주의의 정치 상황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부하린의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세계적 규모의 생산관계에서 자본가들간의 경쟁은 더 이상 시장을 겨냥한 사적 기업들의 투쟁이 아니라 점점 더 군사적·영토적 경쟁의 형태를 띤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군사적 힘이 투쟁하는 ‘민족적 자본가 집단들’이 호소하는 최후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고 있는 지금 제국주의 열강은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 군사적 무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도 제국주의 군비경쟁에 엄청난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이 부시의 전쟁에 적극 참여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이권을 쟁기기 위해서다. 에너지의 90퍼센트를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중동에 이어 떠오르고 있는 유전·가스 지대인 중앙 아시아에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 일본은 이번 전쟁에 참여해 중앙 아시아에 대한 통제권의 일부를 얻고 싶어한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어 자칫하면 옛 소련이 그랬듯이 막대한 군사 비용 때문에 일본의 경제 회복은 더욱 더딜 것이다.

한편, 군사 대국화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자위대 파병과 평화헌법 개정이 동북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이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지원해 왔지만 미국이 정해 놓은 한도를 벗어나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 10월 3일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일본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후 재건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 주기만 바란다고 밝혔다.

이렇듯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냉전 이후 다

국화된 제국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일본내 반전 운동

하지만 일본의 다른 한쪽에서는 군사대국화를 반대하는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 9월 27일 ‘평화와 생활을 연결하는 모임’, ‘피스 보트(Peace Boat)’ 등의 시민단체들이 “테러대책 법안과 자위대 파견은 전쟁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

며 고이즈미의 전쟁 노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지난 10월 9일에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 아시아 인권기금 등 28개 단체가 한국의 참여연대와 민중연대를 비롯한 319개 단체와 함께 전쟁 반대 공동선언을 하기도 했다.

반전 시위는 10월 7일과 8일에도 계속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0월 11일 도쿄에서 4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반전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도쿄 시내를 행진하면서 전쟁협력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반대했다.

일본에서 반전 운동에 대한 공감대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본격적인 시위들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9월 28일 실시된 <아사히> 신문의 여론 조사에서 자위대 파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46퍼센트로 찬성 응답 42퍼센트를 웃돌았다. 아마도 이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얼마 전에 역사교과서 왜곡에 맞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전쟁과 군국주의에 맞서는 운동이 더욱 확대된다면 이 야만적인 보복 전쟁을 더욱 빨리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

세계화 반대 운동

현황과 과제

장석준(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교육부장)

지난 9월 30일은 원래 워싱턴에서 IMF-세계은행 연례 총회가 열리기로 돼 있던 날이었다. 그리고, 이에 맞춰 미국과 세계의 진보세력이 세계화 반대 시위를 벌이기로 돼 있던 날이기도 했다.

하지만, 9월 11일의 테러 참사로 말미암아 9월 30일 행사는 무기한 연기됐고, 따라서 시위 계획도 무산됐다. 물론 테러 참사 자체가 세계화의 모순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어쨌든 테러 및 미국의 보복전쟁 움직임이 야기한 새로운 정세로 인해 '세계화 반대 운동'(Anti-Globalization Movement)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전쟁 반대·미국 반대 운동'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테러 직후 많은 논평가들은 이 참사가 세계화 반대 운동의 일시적 쇠퇴를 낳을 것이라 보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반전·반미운동은 결코 운동의 후퇴로만 보이는 않는다. 세계화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통해 세계화 반대 운동은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

2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세계화 반대 운동

1999년 12월 시애틀 항쟁으로 세계화 반대 운동의 강력한 흐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간다. 그 동안 IMF, 세계은행, 다보스포럼, G8회담, APEC, ASEM, 미주개발기구 등 세계화와 관련된 모든 국제기구의 회의 때마다 다양한 진보세력들이 참여한 국제 시위가 계속됐다. 스위스의 제네바, 미국의 워싱턴, 한국의 서울, 캐나다의 퀘벡,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프랑스의 니스, 체코의 프라하, 이탈리아의 제노바 등이 국제회의의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떠들썩했다.

2년이라는 짧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화 반대

운동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국제회의가 있는 곳마다 노동조합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좌파 민족주의자, 급진종교세력의 '무지개' 시위대가 등장하는 것이 세계인의 상식처럼 되었다. 노엄 촘스키, 수잔 조지, 윌슨 벨로, 나오미 클라인, 미셸 초수도프스키 등 세계화 반대 운동의 주요 논객들의 이름이 주류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들의 책이 서점의 한 귀퉁이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제 세계화의 큰손들은 회의 한 번 열려면 아예 카타르 같이 시위대의 접근이 어렵고 사회운동이 발전하지 않은 외진 곳을 찾아다녀야 할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를 놓고 세계화 반대 운동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지난 7월의 제노바 G8회담 때 1명의 사망자를 내기까지 한 이탈리아 정부의 극히 폭력적인 대응을 마주하면서 운동의 질적인 도약에 대한 고민이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이 진전될수록 세계화 반대 운동의 넓은 공동전선 안에 잠재한 차이와 긴장, 갈등도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화 반대 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세계화 반대 운동 하나만을 떼어놓고 보면 과거의 진보운동에 비해 꼭 발전했다고만 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있다. 광범한 사회운동의 공동전선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아직 그 공동전선 내의 중심 세력이 확고히 등장하지는 못했다. 노동계급 헤게모니를 중요시하는 맑스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념과 전략적 목표라는 측면에서도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지난 2년간 운동의 주요 목표는 '기업 주도의 세계화'(Corporate Globalization)였다. 그리고, 운동이 요구하는 대안은 '세계적 정의'(Global



Socialist Women

Doleva!

**Our world is
NOT FOR
SALE**

Svět
ST
STL

Socialist Women

Doleva!

**Our world is
NOT FOR
SALE**

Svět není na prodej
**STOP MMF/SB
STOP THE IMF/WB**

Socialist Women

**Our world is
NOT FOR
SALE**

Svět není na prodej
**STOP MMF/SB
STOP THE IMF/WB**

Justice)였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세계화의 모순이 현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산물이며, 따라서 운동의 목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대안은 결국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사회, 즉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어떤 형태의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반대 운동이 세계인에게 역사의 희망으로 떠오른 것은 이 운동이 지난 1989~91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최초로 진보운동 쪽에 반격의 기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가 세계 진보운동에 던져준 충격은 사뭇 비판적인 것이었다. 소련, 동유럽 사회에 대해 애당초부터 진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온 좌파 경향들조차도 세계적인 침체와 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냉혹했다.

이런 상황은 1995년 12월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을 필두로 한국,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주요 쟁점으로 한 총파업 투쟁이 벌어지면서 처음으로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다. 노동계급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 또한, 한때 각종 포스트주의의 창궐로 인해 '유럽 반동의 수도'라 불렸던 파리가 세계화 반대의 이론적·실천적 거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7년 5월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뒤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에 적녹연합 정부가 등장

했다. 이들 유럽 중도좌파 정부의 이후 실적은 실망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이었지만, 아무튼 현실정치에서도 좌파가 썩은 시체만은 아니라는 게 일단 입증됐다.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벌어지면서 이테올로기 전선에서도 우파의 해계모니가 도전받고 진보이념이 다시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우연치않게도 이는 《공산당 선언》 발간 150주년(1998년)과 겹쳐, 맑스주의 르네상스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투쟁의 새로운 양상이 세계화 반대 운동이었던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 들어 서서히 재생·성장한 각국의 노동자운동, 사회운동 세력, 그리고 세계화 비판을 통해 진보이념의 부활에 기여해온 논객들이 국제적 차원의 공동 실천으로 결집한 게 지난 2년간의 세계화 반대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많은 참여자들, 관찰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이 운동이 전 세계의 이념적 평형추를 다시 한 번 크게 뒤바꿔놓았다는 것이다. 1991년 결정적으로 우경화했던 그 평형추는 이제 되돌이킬 수 없게 왼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워싱턴, 프라하, 니스, 제노아의 사건들은 세계인의 머리와 가슴 속에 그러한 방향 전환을 확실히 다지는 일련의 축제들이었다.

세계화 반대 운동 내의 차이와 갈등

그러나, 세계화 반대 운동 내의 동의는 대체로 여기까지만이다. 이 운동의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보다도 이견이 더 많다.

이 운동의 가장 오른 쪽에는 197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간 후퇴만을 거듭해온 서구의 노동조합 운동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의 우경화, 각종 포스트주의·자유주의의 침투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서구의 NGO들이 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미국의 AFL-CIO 같은 경우는 세계화 반대 운동을 자국 노동자의 애국주의·보호무역주의 정서와 연관시킨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일부 논자들은 세계화 반대 운동을 제1세계 노동귀족과 제3세계 NGO

사이의 야합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게다가 세계화의 본거지 중 하나인 서유럽에서 이에 도전하는 데 실패하거나(프랑스), 도전 자체를 꺼리거나(독일), 더 나아가서는 우파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투항한(영국) 유럽 중도좌파 정부와의 관계 문제가 있다. 운동 내의 많은 세력은 이들 정부에 대해 분명한 비판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화 반대 운동을 이러한 주류 좌파정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서구 좌파 정치세력을 새로이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시키고 있다. 하지만, 또한 적지 않은 세력이 여전히 중도좌파 정부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종속적 협력관계의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운동의 왼쪽 경계에서도 문제는 존재한다. 제노바 시위 때 유혈참극이 벌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이탈리아 극우 정부의 야만적 폭력 때문이었지만, 일부 극단적 세력의 모험주의가 이에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흔히 '흑색 그룹'(Black Group)이라 불리는 무정부주의자들 중에 이런 흐름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던져주는 인물로는 이탈리아의 극좌 사상이 안토니오 네그리를 꼽을 수 있다. 그의 사상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데, 독자들은 《진보평론》 9호(2001년 여름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글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 운동의 전망'을 참고하기 바란다.

세계화 반대 운동은 어디로?

세계화 반대 운동의 미래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흐름은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브라질, 우루과이 등에 기반을 둔 '제4인터내셔널(Fourth International)'이나 영국의 '사회주의자 동맹(Socialist Alliance)', '스코틀랜드 사회주의당(Scottish Socialist Party)'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제4인터내셔널은 특히 프랑스 조직인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LCR)을 중심으로 세계화 반대 운동의 광범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 조직은 1995년 공공부문 총파업 이후 프랑스 사회 곳곳에서 부활한 사회운동들(노동조합 운동, 실업자 운동, 이주노동자 방어 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다진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유럽의회까지 진출했다. 또한 사회당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과 손잡고 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이라는 국제적인 사회운동 조직을 건설했다. ATTAC은 이제 유럽 최대의 세계화 반대 운동 기구로

성장해 있으며, 조직의 주 목표인 토빈세 도입 외에도 세계화 반대 운동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화 반대 운동의 공동전선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운동 내의 이론적·실천적 중심을 새로이 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기업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라는 모호하고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반대라는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단계로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하면 각국의 노동계급 운동을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복귀시킬 것인가 하는 실천적 고민으로 나타난다.

또한, 단순한 '반대'를 넘어 '대안'의 차원에까지, 즉,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사회주의의 전망을 구체화화자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사실 대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논의의 부재야말로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세계 진보운동의 가장 결정적인 후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 논의의 재개를 위해 추진된 것이 올해 2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1차 세계사회포럼인데, 이 회의의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4인터내셔널 경향이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비단 제4인터내셔널 경향의 사회주의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 노동당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는 사회주의자 동맹, 스코틀랜드 사회주의당 등도 세계화 반대 운동이 이렇게 '자본주의 반대 운동'으로, 더 나아가 '자본주의 극복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선을 추구하는 유력한 진보 잡지로는 영국의 월간 시사지 <붉은 고추 Red Pepper>, 영국·캐나다에서 공동 편집되는 연간 이론지 <사회주의 연감 Socialist Register>, 미국의 <월간 평론 Monthly Review> 등이 주목된다. 또한, 대안 문제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객들로는 영국의 힐러리 웨인라이트, 알렉스 캘리니코스, 캐나다의 레오 파니치, 그레고리 엘보, 샘 긴딘, 러시아의 보리스 까갈리쯔키, 미국의 마이클 알버트 등이 있다.

세계화 반대 운동은 이제 성장의 한 매듭을 짓고 있다. 이 운동은 바야흐로 각국 노동계급 운동의 재생, 그리고 탈자본주의 대안 이념의 부활이라는 가장 참예한 도전에 맞닥뜨려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물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세력에게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부패 — 자본주의의 만성 고질병

임미정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에 이어 이용호 게이트가 신문과 TV를 도배하다시피 하더니 또 다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이 세 사건 모두에서 김대중의 친·인척과 한화갑, 권노갑 같은 민주당 실세들이 거론됐다. 이용호 게이트는 김대중 정부의 부패 완결판이었다.

이용호가 관리한 리스트는 무려 1,819명이나 됐고 검찰·국정원·금융감독원·국세청·산업은행·경찰 등 거의 모든 정부기관과 여당 실세·김대중 처조카·전 검찰청장 김태정 같은 김대중 주변 인물들이 메두사의 머리카락처럼 얹혀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조폭 출신 기업가가 로비를 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서둘러 마무리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동안 정권 실세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용호와 언론인, 증권사와 거대한 커넥션을 짜고 각종 주가 조작과 언론 조작을 통해 수백 억에 이르는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

기고 있었다.

부패 스캔들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올 해 필리핀 대통령 에스트라다는 슬롯머신 업자에게 뇌물을 받다가 대중의 거센 반발로 쫓겨났다. 페루의 후지모리도 부패 스캔들로 쫓겨났다.

1930년대 공황기에 미국의 유명한 갱 두목이었던 알 카포네는 자본주의란 “지배 계급이 저지르는 합법적인 사기”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업이 관료들에게 갖다 바치는 돈이 총 사업비의 5분의 1가량이 된다. 독일은 1년에 약 3조 달러를 해외 수주 계약의 리베이트로 쓴다고 추정한다.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사업인 무기 기업의 경우, 거래액의 10퍼센트가 뇌물이다. 무기 거래액의 약 40%가 리베이트라는 통계도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부정부패 사건은 끊이지 않는 걸까? 부패는 인간의 본성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가 썩어 빠진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고 여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부패가 정실 자본주의 국가들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패는 개발도상국만의 특징이 아니다.

독일 언론은 헬무트 콜 독일 수상의 정치자금 스캔들을 폭로하며 그를 “돈 콜레오네”라고 불렀다.

합법적인 로비야말로 잘 조직된 부패이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만 4만명에 이르고 지난 미국 대선에서 부시와 딕 체니는 에너지 기업들에게 4천7백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부시 행정부의 내무장관 게일 노튼은 로비스트 출신이다.

미국은 IMF 자금지원을 받는 나라들에 대해 부패 방지협약에 가입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이건 순전히 미국의 기업들이 뇌물을 갖다 바치는 외국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 기구는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로부터 운영비를



강도 귀족들은 부패와 횡령, 뇌물, 리베이트, 부정이득, 밀수, 통화 조작, 청탁, 국가 재산을 훔쳐 개인 재산 축적하기, 국가 화폐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등 문자 그대로 축제의 도가니에 빠져 들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부패야 말로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의 주요 원인이었다.”

신자유주의가 기세를 부리던 1990년대에 부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 타임스>에 ‘부패’라는 단어를 언급한 기사의 수가 1982년부터 87년까지 평균 229개에서 1995년에는 1,246개로 폭증했다.

부패는 자본주의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의 산물이다. 자본주의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체제이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어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쟁업체를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이나 비합법을 넘나들며 자본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다. 경쟁과 시장이 바로 부패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경유착과 부패가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을 돕기도 했지만 자본주의가 경쟁 체제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부패는 체제에 독이 되기도 한다. 한 자본가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득을 얻으면 다른 자본가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경제 위기 시기에는 부패 문제가 체제에 대한 심각한 반감을 불러 일으킨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를 몰아낸 것은 수하르토 일가의 부패에 대한 엄청난 반감 때문이었다. 

지원 받는다.

국가와 자본의 밀착 정도가 심한 개발도상국들에서 부패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한국처럼 미국이 지원했던 개발도상국 독재 체제들은 유난히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미국의 원조 자체가 국제적 뇌물이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지금의 재벌들은 이승만 치하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 성장했다. 정주영의 현대건설은 미8군기지 건설을 독점하면서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큰 정부”가 부패의 원인이라며 “작은 정부”가 되면 부패가 줄어들 거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말도 거짓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의 민영화 과정은 그것 자체가 부패의 향연이었다.

“1980년대초 개혁이 시작된 이래 중국 공산당의

부시와 덩 체니(가운데)는 석유 업계로부터 엄청난 정치 자금을 받았다. 부시와 공화당은 석유 채굴 장려 정책으로 화답했다.

출입국 규제를 철폐하라

김은영

지난 10월 7일, 우리 나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 25명이 숨졌다. 이들은 환기구도 유리창도 없이 밀폐된 네 평 크기의 생선 보관 창고에 숨어 있다 질식사했다. 경찰은 간신히 살아 남은 중국인 35명이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체포했다. 살아 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너무나 끔찍했다. 그들은 “중국 배에 있는 6일간은 아무것도 못 먹었고 한국 배에 옮겨 탄 뒤에도 먹은 거라곤 각자 밥 한 끼와 곰팡이 낀 빵 두 개뿐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사망한 중국인들이 숨어 있던 생선 보관 창고 벽면은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엄청난 고통 때문에 피가 나게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숨진 이들을 바다에 버린 선장과 선원, 알선책을 “비인도적·반인륜적 범죄자”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은 김대중 정부이다.

최근 몇 달 동안 김대중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악랄하게 단속했다. 지난 6월에는 11일 동안 무려 2천여 명이나 되는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켰다. 실업과 노동 조건 악화에 대한 국내 노동자들의 불만을 이주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였다.

사망한 이들은 김대중 정부가 행한 이주 노동자 정책의 희생자들이다. 작년에도 한 이주 노동자가 여객선 냉동실에 숨어 밀입국을 시도하다 숨진 일이 있었다. 이주 노동자들은 좀 더 나은 별이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밀입국한다. 이번에 죽은 중국인들도 자식들의 학비 마련과 가난 때문에 이런 참사를 당한 것이다. 이들의 죽음은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을 제한하고 출입국을 규제해 온 결과이다. 만약 이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 수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운이 좋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

사망자 추도 집회 참여자들은 흐느끼며 ‘자유왕래’ 보장을 요구했다.

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연수생 신분에서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된다.(이주 노동자 30만여 명 중 20만 명이 넘는 수가 불법 체류자다.) 연수생이라는 빌미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임금도 불법 체류자보다 적기 때문이다.

출입국 규제는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양산해 낸다. ‘불법’이라는 딱지는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산업 재해를 당해도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충분한 보상과 치료를 받기 힘들다. 1998년부터 1년 반 동안 산

재를 당해 사망한 이주 노동자 수는 52명에 달한다. 이 수치가 신고에 한한 노동부 통계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또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잦은 임금체불로 자살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의 끔찍한 이주 노동자 정책은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때문에 노동·시민단체들은 ‘연수생 제도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 절박한 요구들을 묵살했다.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일하기를 꺼리는 3D업종에 취업해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나라 경제 성장에 크나큰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지난 8월 19일, 정부는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연수 취업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의 2년 연수, 1년 취업의 연수취업 제를 1년 연수, 2년 취업으로 바꾸는 ‘개선책’”은 말 그대로 조삼모사식 기만이다. 연수생 제도가 철폐되지 않고 노동허가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도 개선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속임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밀입국 ‘범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6월, 김대중의 경찰은 이주 노동자들을 살인 용의자로 몰아 고문 수사를 벌였다. 그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성기를 노출시킨 후 혁대로 때리거나 손톱을 스테플러로 눌러 잡아 빼는 가혹행위를 했다. 또 작년 5월에는 몽골인 노동자를 신문하다 얼굴에 총을 쏘아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최근 법무부는 밀입국 알선자와 밀입국자에 대한 처벌과 벌금을 높였다. 정부는 매번 단속 강화를 외쳤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더 늘어났을 뿐이다. IMF이후 정부의 단속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들이 10만여 명으로 줄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20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해결책은 이주 노동자들을 더욱 음지로 내몰고 참혹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지난 10월 14일, ‘밀입국 중국인 사망자 추도집회’에 참석한 중국 동포들은 정부에 자유왕래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눈물어린 호소처럼, 정부는 모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국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독자편지

〈다함께〉 5호(2001년 10월호)에 실린 '공황에 대한 이해'(김수행 교수)를 잘 봤다. 기본적으로 이 글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가 왜 위기에 빠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 글 뒷부분에 있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에 대한 설명은 부적절하다. 김수행 교수는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과 함께 이윤율이 상승하는 경향도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높아지면서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윤율이 떨어지지만 다른 한편 생산성이 올라가서 원료와 기계의 값이 떨어지고 노동력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윤율 저하를 상쇄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글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자본가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 대신 기계를 계속 도입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

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수행 교수의 이런 설명은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은 투자된 자본이 생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생산성의 변화로 인해 가치의 변화를 겪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자본가가 올해 초에 불변 자본 80과 가변자본 20을 투자하여 연말에 20의 잉여가치를 얻었다면 이 자본가의 이윤율은 20퍼센트다. 하지만 1년을 거치는 동안 불변자본(특히 기계)의 도덕적 마모와 생산성의 상승으로 그 가치는 연초의 가치만큼 되지 않을 것이다. 편리하게 말해서 연초에는 80이었던 불변자본이 연말에는 60으로 20만큼 가치가 줄었다고 생각해보자. 김수행 교수는 이 자본가의 이윤율이 $20/(60+20)$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윤율은 25퍼센트가 된다.

김수행 교수가 말하는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경향이란 다른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줄어드는 불변자본 가치 때문에 이윤율이 늘어나는 것(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을 의미한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김수행 교수처럼 생각

하지 않았다.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이란 투자된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라고 봤기 때문에 설사 연말에 불변자본의 가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윤율은 20퍼센트다.

어떤 자본가가 신규 기계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이전의 생산방식을 사용하는 자본가에 비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과 이윤은 경쟁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경쟁은 체제 전체에 이윤율을 끌어 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경쟁 압력 때문에 다음해 초에는 자본가들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을 80대 20이 아니라 100대 20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윤율이 20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이윤율 상쇄 요인을 이윤율 저하와 대등한 하나의 경향으로 봐선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자본주의가 상쇄 요인을 통해 위기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하지만 상쇄 요인은 이윤율 저하 경향에 비해 항상 부차적이며, 이윤율 하락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저하 경향 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이정구

'세계경제는 공황으로 가는가'의 저자 김어진 씨는 위기에 빠진 세계 경제가 온갖 경기부양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저자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마도 관련 경제학자나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늘어놓는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너무 황당해 이에 대한 해독제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의 소단락 '단기적 처방들'에서 저자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금 감면, 금리 인하,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 모두가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대안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위기는 종종 극단적 방식으로 해결됐다."며 1929년의 대공황을 예로

들고 있다.

물론 저자가 "자본주의 위기는 자동 조절되기 마련"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옳바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가 곧장 극단적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사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 위기는 장기적이고 고질적이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 심화 정도가 1929년 대공황과 비슷한 수준은 아니었다. 1929년 대공황은 자본주의 체제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였다. 세계적으로 국내 총생산은 15퍼센트가 감소했고 경제 대국이었던 미국과 독일의 국내총생산도 각각 296

퍼센트와 169퍼센트 감소했다. 노동자 세 명당 한 명이 실업자였다. 물론 저자도 지금의 위기가 1929년 대공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에 직면한 지배자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 위기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물론, 저자의 지적처럼, 지배자들의 이런 노력이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지도 위기로 빠지는 추세도 바꾸지 못한다. 저자가 놓치고 있는 점은 이런 노력마저 없었다면 위기는 훨씬 더 심화됐을 것이란 사실이다.

최근의 세계적 경제 위기에 직면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케인즈주의적 방식을 도입

하고 있다. 그래서 친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 위기가 죽은 케인즈를 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990년대에 세계 경제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늦춘 것은 미국 경제의 부분적 호황이었다. 1990년대말부터 미국 경제조차 위기에 빠지면서 ‘○○발

세계공황’이라는 말이 며칠마다 하루씩 경제면의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세계공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온갖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펼치던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제는 국가의 역할을 강

조하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짙막하고 회복 같지 않은 회복과 함께 길고 힘든 불황·경기침체가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서서히 또 어떤 때는 급속히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것이다.

이장구

《불량국가》

노엄 촘스키, 두레

노엄 촘스키는 가장 최근에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여 서방의 정치가들이 매우 애용하는 용어(‘강패 국가’)의 기원과 의미에 담긴 위선을 폭로하고 있다.

《불량국가》는 최근의 강연과 기사들을 묶어낸 것으로 그리 두껍지는 않다. 하지만 본문의 일부 글들은 원래 주제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다루는 범위가 광범하다. 촘스키는 전후 미국 대외 정책을 검토하면서 중남미,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의 발칸 전쟁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덧붙여, 촘스키는 전후 국제 질서 구조(특히, 세계인권선언)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 분야는 제3세계 부채와 주빌리 2000 캠페인에 관한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주권에 대한 최근의 논쟁을 포함하여 미국의 국내 무대도 검토하고 있다.

촘스키는 이 책의 첫 장에서 검토할 항목들을 밝히면서 강패 국가라는 용어의 이중적 의미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첫번째는 선별된 적국에 적용되는 중상모략적 의미다. 두번째는 자신은 국제적 규범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다.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 쓰여

진다는 오래된 격언에 따르면, 강대국들(특히,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미국)이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촘스키는 이 책 전체에서 전후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근본적 믿음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공식 문서와 연설문들을 폭로하는 탁월한 재능을 보여 준다. 실제로 촘스키가 제시하는 어떤 인용문들은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

본문에는 미국의 위선에 대한 수많은 예들로 가득 차 있다. 예컨대,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발전의 선구자

라는 선전 공세는 문서 기록과 아무 관계가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거부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대표 모리스 에이브럼은 “발전은 권리가 아니”며,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은 “위험한 선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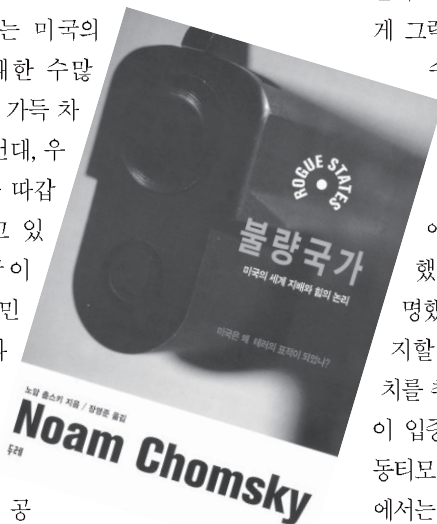
미국 사회에서 기업은 살아 있는 인간보다 세계인권선언의 보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로 가장한 광대극에서 주요 양당 후보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은 기업의 ‘언론 자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됐다.

정부의 말과 행동 사이에 거대한 심연이 존재한다는 점을 안다면, 미국 지배 계급이 문자 그대로 살인과 마찬가지로 정책을 어떻게 그러저럭 추진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75년 유엔 주제 미국 대사였던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은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에 대한 유엔의 비난이 어떻게 묵살당했는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모이니한은 미국이 그 침공을 지지할 뿐 아니라 “국무부는 유엔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완전히 무력하다는 점이 입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결과, 동티모르인의 3분의 1이 학살당했다. 미국측에서는 수하르토가 그 지역에 ‘안정’을 가져다 줬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렇듯 수치스러운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 책은 권위 있고 매력적일 뿐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촘스키의 이전 저작들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책이 예전에 출판된 저작들에 수록된 개인 강연과 기사들의 모음집이라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일련의 주제들과 그가 보



여 주는 불굴의 태도는 촘스키의 이전 저작들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입문서가 될 것이다.

《이슬람》

이희수 외, 청아출판사

조승익

《이슬람》의 소제목은 “이슬람 문명 을 바로 이해하기”다. 이 책을 만드는 테이슬람 권 현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12명의 소장 학자들이 참여했다. 한국이슬람학회 회장인 이희수 씨는 서문에서 “이슬람을 제대로 만 나는데 우린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서방 지배자들이 이슬람 인들은 항상 참혹하고 두려운 테러리스트이며 그들의 종교는 전근대적인 미개종교로 묘 사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13억이나 되는 이슬 람에 대한 서방의 비난과 왜곡에 맞서 이슬 람을 방어한다는 점에서 훌륭하다. 이희수 씨는 “왜곡된 이슬람을 객관적이고 현지 문 화 입장에서 바로 잡아보자”는 것이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취지라고 말한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의 망령

《이슬람》은 서방의 지배자들과 언론이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여 이슬람이 호전적이며 강압적인 종교 전파로 묘사하는 것에 반대한다. 꾸란에서는 “종교에는 어떠한 강요도 있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며 ‘무력에 의한 이슬람 전파’에 대한 어떠한 혼적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 한다.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생한 이슬람 은 그후 1백 년도 채 안 된 시기에 서남아시

아, 중앙아시아, 인도, 아프리카는 물론 남부 유럽에 이르는 거대한 세력권을 형성했 다. 이슬람 정복 과정에서 강제 개종은 실제 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무슬림들은 비무슬림들에게 일정한 사회적·법적인 차 등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슬 림보다 비무슬림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부과하는 인두세였다.

그런데 이 공납 액수도 비잔틴이나 페르시아의 수탈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적어도 제1차세계대전까지 중동의 이슬람 사회는 소수 민족에 대한 지위 인정과 다원주의적인 공존에 익숙해 있었다고 지적한다. 2천여 년간 아랍인과 유대인이 상 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 함께 공존해 온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무슬림들은 왜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가

이 책은 아랍인들이 미국에 분개하는 기본적인 뿌 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 문제에 있다고 제 대로 보았다. 제2차 세 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스라엘은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비옥한 땅(올리브 농장과 곡창 지대 80퍼센트, 아랍인 공장의 40퍼센트)을 빼앗아 나라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사는 주변국을 걸핏 하면 침공해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다. 미국 은 계속 벌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 살을 지원했다.

“오늘날 중동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되는 시 나이 반도, 지중해 쪽의 가자 지구, 요르단과 의 경계인 요단 강 서안, 시리아의 베카 계곡 이나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점령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점령 지 즉각 철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그 결의안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극

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은 50여 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유 엔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아랍 민족의 조그만 실수에 대해서는 폭격, 무역봉쇄, 경제제재 등의 조 치를 취한다. 그러니 아랍 쪽에서 미국이나 서방 측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슬람과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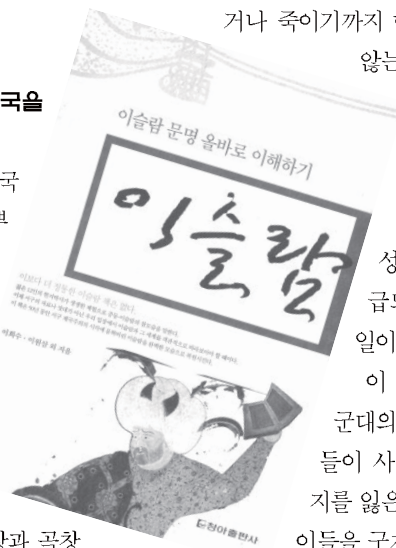
언론은 이슬람 여성은 서방과 달리 남성으 로부터 온갖 억압과 속박을 받는다고 말한 다. 그러나 언론은,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 아랍 세계 여성의 지위는 단지 재산의 일부 로 취급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산채로 매장하 거나 죽이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랍·이슬람

세계뿐만 아니라 그 당 시 사회의 일반적 관습 이었다.

이슬람에서 행해지는 여 성 억압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일부다처제와 베 일이다.

이 책은 일부다처제는 이슬람 군대의 초기 전투에서 많은 남성 들이 사망하게 되자 남편과 아버 지를 잃은 여성과 아이들이 많아져 이들을 구제하는 방도의 하나로 받아 들이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 에 일부다처제가 아내들의 공동거주·공정 부양·공평상속 등을 전제하기 때문에 애초 부터 일정한 조건—경제적 부양 능력—하 에서만 허용되고 또 가능한 혼인 제도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날까지 일 부다처제를 인정하는 이슬람 국가들에서조차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경우는 그다지 많 지 않다.

베일에 관해 말해보자. 이 책은 “역사적으 로 히잡 착용의 관습은 이슬람 이전 시대부 터 존재해 왔다.”고 옳게 지적한다. 애초에 베일은 비잔틴 제국에서 유행하던 것인데 이



를 이슬람이 받아들였다. 실제로 꾸란은 ‘유혹하는 것’,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히잡은 여성에게 순결성을 강요하는 것파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가려야 할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가슴 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히잡 착용은 다른 서방 세계의 여성들이 이러저러하게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것처럼 여성 억압의 한 표현인 것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 《이슬람》이 “히잡은 여성을 속박하는 개념이 아닌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서방 지배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여성을 억압하는 이슬람 지배자들과나 또 이를 정당화하는 이슬람 페미니즘에 타협한 것은 아쉽다.

그 외에도 이 책은 중동 국가들의 지배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호적이며(예컨대 무바라크를 중동 평화의 중재자라고 본다), 중동 내의 빈부 격차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약점도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너무나 생소한 이슬람과 그 문화를 독자들이 알기 쉽게 생생한 사례들을 전해주고 있어 대중서로 손색이 없다. 이슬람에 관한 간단한 소개부터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실체, 이슬람권의 일부다치제는 어디서 비롯되었나, 쿠르드족의 비애·코소보·보스니아 사태·체첸 반군 문제·카슈미르 분쟁·아프가니스탄 등 참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슬람 세계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 책은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더욱 깊은 탐구를 자극하는 훌륭한 입문서이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투쟁》

막심 로댕송, 두레

정병호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충돌하고 있는지, 테러는 왜 일어나는지, 아랍인들은 왜 미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제기되고 있다.

독자들이 이러한 의문들 중 핵심적인 몇 가지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막심 로댕송의 저작 《아랍과 이스라엘의 투쟁》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 책은 출간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시온주의

로댕송에 따르면,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기원은 “[아랍]국가 영토의 일부를 외국인들[유대인]이 점령”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는 유대인들이 억압받던 민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1879년 개인적으로는 유대인에 대해 어떤 편견도 갖지 않았던 비스마르크가 반 유대주의 운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의한 희생양이 되었다. 반동 세력은 ‘자유주의’, ‘산업주의’, ‘정교본리주의’ 등 당시 점증하던 부르주아 질서를 적극적으로 삼고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유대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리고 이런 억압은 나찌가 저지른 홀로코스트와 러시아 제정에 의한 박해(Pogrom)에 와서는 극심한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유대사회주의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박해에서 해방되려면 “하나의 고국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시온주의(Zionism)가 등장했다.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에 단

일 민족으로 구성된 유대국가를 건설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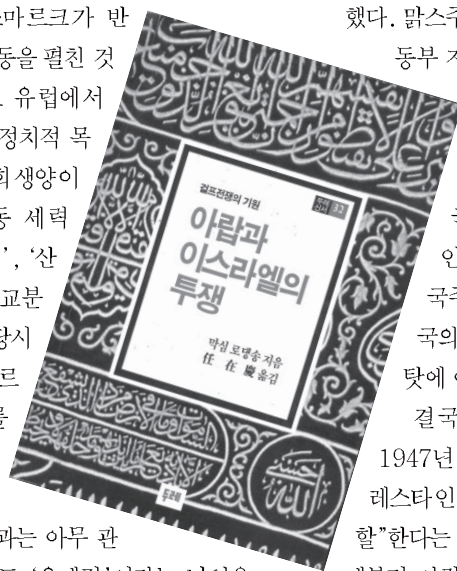
애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약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자연스레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이주하곤 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시온주의의 외파를 쓰게 되자 아랍인들은 이를 “점령”으로 받아들였다. 아랍인들은 당시 막 터키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배는 용납되지 않았다.

로댕송은 유대인이 아무리 박해받던 민족이라 하더라도, 점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점령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1917년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의 조국을 수립해 주기로 약속하는” 발포어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아랍인들은 “파업, 가두시위, 그리고 수많은 폭동”으로 저항했다. 이러한 저항은 혼란된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것이기도 했다. 맑스주의가 받아들여지는 한편, 아랍 동부 지역에서는 파시즘도 상당한 기세로 파급되었다. 독일 나찌즘이, 영국·프랑스와 대립하고 있다는 점과 강력하고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려는 사상이라는 인상 때문이었다. 또 한편 서방 제국주의에 의한 국경 분할이 아랍 각국의 상이한 이해 관계를 형성시킨 탓에 아랍은 분열되었다.

결국 저항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1947년 미국과 소련의 국제연합은 “팔레스타인을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분할”한다는 요지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아랍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랍 국가 간의 분열 때문에 번번이 패배했다. 결국 이스라엘 국가 성립은 기정 사실이 되었다.

점령 이후 이스라엘은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끔 B급 국민으로 차별대우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제연합이 지정한 영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팽창주의 정책을 고수했다.



아랍 사회주의

아랍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때때로 그들의 불만은 사회주의의 외피를 쓰기도 했다. 군벌 출신인 이집트의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와 대형 은행, 기간 산업 등을 국유화했다. 이에 놀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수에즈 원정이라는 군사 행동을 감행했다. 그런데 이 군사 행동은 오히려 나세르가 ‘반제국주의 투사’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그러나 로댕송에 따르면 나세르의 사회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나세르는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혁명’은 인정해도 ‘노동자, 농민에 의한 혁명’은 아주 질색했다. “계급투쟁은 그가 싫어하는 말”로서, “분열과 증오 그리고 이기주의를 불러들이는 것으로 묘사”됐다. 그에겐 계급해방이 “민족해방이라는 제1의 목표에 종속”돼 있다. 실제로 나세르는 “대지주, 대부호의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 지배력을 약화시키려”고 할 뿐이었다.

이는 시리아의 바트당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들 ‘아랍 사회주의’는 아랍 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들은 사회 혁명보다는 민족적 단결을 우선했다. 그러나 아랍 민족이 항상 단결한 것은 아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통일해서 창건됐던 통일아랍공화국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반이스라엘에는 단결했지만 단결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종종 다투었다.

패배

로댕송은 이러한 분열이 결국 1967년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또한 이스라엘 내의 강경파 득세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나세르나 바트당이 반제국주의적 연사를 즐겨 쓸 정도로 당시 아랍인들에게는 반이스라엘 감정이 격화되고 있었고, 반대로 이스라엘인들은 아랍의 반이스라엘 정서가 높아지는 게 두려웠다. 그 결과 아랍과 이스라엘 모두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됐다.

1967년 전쟁이 시작된 지 몇세 만에 아랍은 패배했다. 로댕송의 지적처럼 아랍이 분

열돼 있었던 것은 패배의 한 요인이다. 나세르나 바트당 모두 자신들이 말했던 반제국주의적 연사에 걸맞게 대중을 조직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난 대중이 언젠가는 자신을 타도할까 봐 두려워했다. 전쟁의 결과 자신의 권력이 붕괴될까 봐 조바심을 느꼈던 아랍의 지배계급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분오열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것은 아랍이 이스라엘 식민주의에 패배한 원인이다.

로댕송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기원에 대해 탁월한 견해를 제시했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접근했다.

아랍 민족의 진정한 단결은 민족주의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제국주의 투쟁과 사회 변혁을 결합시킬 수 있는 노동자 계급의 대중 행동에 의해 가능하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습으로 중동 지역은 격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정권의 친미적 태도에 분개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대한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과 사회 변혁의 연관성을 일관되게 제시할 정치와 결합한다면, 중동에서 이스라엘 식민주의를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레닌》

로버트 서비스, 시학사

소련이 붕괴하자 많은 좌파 역사가들은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게다가 보수적 역사가들이 레닌의 혁명 정부와 스탈린주의 정권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를 ‘입증하는’ 저작들을 출판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옥스퍼드의 세인트 안토니 칼리지의 러시아사 교수인 로버트 서비스가 쓴 《레닌》이

최근에 번역돼 나왔다. 한때 그가 이 책에서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혁명에 대한 논쟁에 사회역사가로서 기여한 게 있다면 레닌에 관한 보수주의 역사가들의 황당한 헛소리를 드러낸 것이었다. 하지만 서비스도 1930년대의 스탈린주의 체계가 레닌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주장을 반복한다.

“레닌에 의해 창조된 국가는 70년 이상 손상되지 않고 생존했다. 그 건축물은 비록 최소한의 설계도를 따랐지만 이례적으로 급속하게 지어졌다. 1917~9년 레닌의 지도하에 이미 주요한 작업들은 끝이 났다. 기반이 닦였고 기둥이 세워졌으며 지붕이 올라갔다. 정치는 독점되고 중앙집권화되었다. 억압적 기구들은 확고하게 당의 통제를 받았다. 국유화와 국가 규제가 경제를 관통했다. 종교는 조직적으로 박해받았다.” (870~871쪽)

이 글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다. 서비스는 오래 전부터 레닌이 스탈린을 낳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책은 지적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억측·사변·대중 심리·신랄한 풍자로 가득차 있다. 서비스는 이 책에서 사악한 개인 사관까지 담고 있다. 권력욕에 눈이 먼 레닌이 볼셰비키와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을 조정해 자신의 지배욕을 채웠다는 식이다.

그는 1991년 러시아공산당의 문서보관소 개방으로 입수한 레닌에 관한 정치적·개인적 기록들 덕분에 가장 사실적인 전기를 쓸 수 있었으며, 자신의 오래된 의심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비스의 책에는 그 자료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 이 책의 대부분은 신변 잡기적인 내용들이다. 네 명의 여인(어머니, 누이, 부인 크롭스카야, 동지이자 연인인 이네사 아르망)에게서 보살핌을 받은 레닌은 죽을 때까지 ‘응석받이’로 살았다는 것이다. 또 책의 많은 부분은 레닌의 유아기와 개인적 삶에 할애돼 있다. 서비스는 레닌이 정치적 논쟁에서 보인 행동에서 더 거슬러가 그의 사생활과 유아기뿐 아니라 심지어 가까운 추측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서비스는 레닌을 잔인한 독재자로 묘사하면서 몇 가지 독특한 주장을 펴고 있다. 1891~1892년 볼가 지역의 기근 동안 레닌은 “소작농들에 대한 연민이 전혀 없을” 정도로 “냉혹했다.”(169쪽) 또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라방(대형 마차) 4대면 모두 태울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 그런데 서비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참가한 대표자들의 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반면 레닌은 기뻐했다.”(452쪽) 레닌은 참여자 수가 적을수록 자신의 견해에 동조해 줄 사람의 비율이 커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는 분노를 자아내는 주장도 편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가 1919년에 살해됐을 때 “이 사건은 국제 공산주의의 재앙이었지만 레닌은 개의치 않았다.”(684쪽)고 왜곡한다. 이것은 레닌이 독일 사민당에서 룩셈부르크를 헐뜯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으며, 레닌 자신이 “그녀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10월 혁명

서비스는 레닌 사상의 발전과 사회 변화의 동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서비스는 1905년 혁명에 대한 레닌의 태도를 이렇게 정리했다. “레닌의 해결책은 노동자 및 학생의 광범위한 분건대가 혁명 활동에 참여하게끔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분건대는 첩자를 살해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며 은행을 털어 무장봉기에 필요한 자원을 징발해야 할 것이다. 그의 과격한 상상력은 계속되었다.”(327쪽) 서비스는 대중의 혁명적 분출과 이에 대한 레닌의 입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또 레닌이 혁명적 자발성의 분출로부터 배운 바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가 인용하지 않은 레닌의 글 들에는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 대중 행동이 혁명적 과정의 주된 특징으로 부각돼 있다.

서비스는 1917년 혁명이 레닌의 창조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1917년 2월에서 10월에 이르는 몇 달 동안 수백만의 대중이 혁명적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볼셰비키의 조종 때문이 아니었다. 동부전선의 유혈낭자한 전쟁이 계속됐고, 식량 부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지주와 사장들의 특권은 계속 유지됐던 물질적 조건이 대중을 급진화시켰던 것이다.

임시정부에 번번히 속았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병사들 다수는 노동자들이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볼셰비키의 혁명적 전략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서비스는 혁명을 수행하는 세력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언급은 서비스의 책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에겐 노동자 계급 권력에 대한 레닌의 강조가 개인적 권력욕을 가리는 변명거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스탈린의 등장

러시아 혁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상황을 분석하지 않으면 스탈린의 등장을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뒤 몇 년 동안 러시아는 내전에 돌입했다. 혁명 러시아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열강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으며, 국내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던 반혁명 세력들과도 싸워야 했다.

내전의 결과 러시아의 경제적·사회적 처지는 위기 그 자체였다. 노동자 계급은 거의 붕괴하다시피 했다. 볼셰비키는 무너진 계급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볼셰비키는 혁명을 보호하기 위해 믿기 어려운 결정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의 국유화, 곡물의 강

제 징발 등은 결코 사회주의적 조치들도 아니었으며, 영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원칙도 아니었다. 혁명이 서유럽으로 확산된다면 볼셰비키가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압력이 사라질 터였다.

서비스도 “빈곤, 기아, 질병이 일상이 됐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볼셰비키는 완전히 중앙집중적 명령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혁명과 중국혁명이 패배하자 혁명의 국제적 확산은 더욱 현실에서 멀어졌고, 러시아는 고립됐다. 이런 국내외적 위기가 결합된 과정 덕분에 러시아 혁명의 핵심을 파괴했던 스탈린이 등장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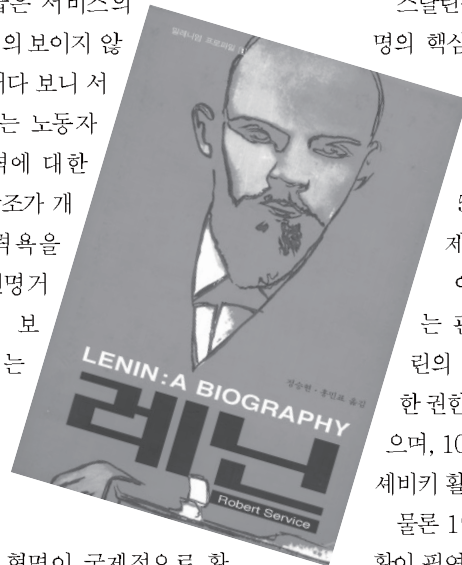
스탈린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러시아 혁명의 핵심들을 파괴했다. 1925년말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론을 당대회에서 통과시켜 레닌의 국제주의의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또 제1차 5개년 계획 동안 농업 집산화와 강제 공업화가 시행됐다.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적 통치가 필요했다. 스탈린의 비밀경찰인 게페우(GPU)가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고, 노동수용소가 세워졌으며, 10만 명이 숙청으로 죽었다.(주로 볼셰비키 활동가들이었다.)

물론 1920년대의 국제 정세나 러시아 상황이 필연적으로 스탈린주의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컨대 트로츠키가 이끄는 좌익 반대파가 의미 있는 숫자의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서비스는 경제가 중세적 상태에 빠진 점이나 볼셰비키의 노동자 계급 기반의 붕괴보다는 레닌의 개성과 믿음의 힘이 스탈린주의를 등장하게 한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1917년에서 1980년 말까지의 소비에트는 틀림 없는 레닌의 창조물이었다. 10월 혁명과 맑스-레닌주의 그리고 USSR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레닌의 은혜를 입은 것이었다.(872-873쪽)



물론 볼셰비키당도 실수를 했고, 레닌도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들은 독재로 나아가는 레닌의 성향이 아니라 매우 열악한 객관적 상황에서 비롯했다. 정말이지 중요한 것은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비중이 증대하는 것과 혁명이 러시아 밖으로 확산되는 것이었다. 유럽에서 혁명이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 혁명은 타락과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서비스는 이 책의 말미에 “격하될 수 없는 레닌의 이미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러시아인들의 마음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극심한 사회적 빈곤을 세계의 곳곳에서 … 레닌에 대한 기억을 간절히 염원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876쪽) 하고 염려하는 말을 하고 있다.

서비스는 이런 전망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전쟁과 경제 침체로 위기에 빠진 세계를 바꾸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1917년 혁명에서 노동자 계급이 보여 준 위대한 행동과, 그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활동했던 볼셰비키 그리고 그 지도자였던 레닌에게서 배울 바가 많이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로버트 서비스의 이 책은 그런 장점들을 전혀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가자, 아메리카로!》

리오 휴버만, 비봉

정진익

최근 미국이 자행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을 보면, 지구를 지배하는 이 괴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진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줄 책이 때마침 재

출판됐다. 미국의 탁월한 사회주의 저널리스트 리오 휴버만이 쓴 《가자, 아메리카로!》라는 책이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미국이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비교적 긴 시기(17세기 초~1929년)를 다룬다. 제2부는 ‘백만장자에서 무일푼’이 되는 대공황 이후의 미국을 다룬다. 원제(<우리, 민중의 역사: 미국의 드라마>)가 잘 드러내고 있듯이, 이 책은 몇몇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일구어 온 미국의 역사를 다룬다.

민중의 역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 미국은 거대한 이민의 물결 속에서 탄생했다. “미국은 그 시초부터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었다.”

강제로 끌려 온 노예들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미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이었다.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림과 억압과 “압박을 피해 부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건너와 황무지를 개척했다.

이 약속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휴버만은 초기 개척 시대부터 1947년까지의 역사를 다루면서 여기에 답한다. “오직 정상의 사람들에게만 실현되었다.” 풍요와 자유의 꿈은 모든 미국인의 꿈이었으나, 그것은 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되면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현되지 못한 꿈이 됐다.

휴버만은 많은 미국인들이 풍요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미국인들만이 부유해지는 과정을 모두 그려내고 있다.

그는 영국에 맞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 혁명 때 꽃핀 자유와 평등의 이상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짓밟혔는지 잘 묘사한다. 또, 미국 민주주의가 갖는 기만성도 엿

볼 수 있다. 오늘날 미국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내세우는 3권 분립은 민중이 너무 많은 힘을 갖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시도에서 나왔다. 독립 후 부자들은 정부를 중요한 3개 부분으로 나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그 중 하원만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했다(129~130쪽).

이 외에도 독점금지법이 기업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도리어 주로 노조 파괴에 이용됐던 점, 스페인 내전과 일본의 중국 침략 당시 불개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프랑스와 일본에게 군수 물자를 지원했던 것 등은 미국이 국내외에서 보인 이중성과 위선의 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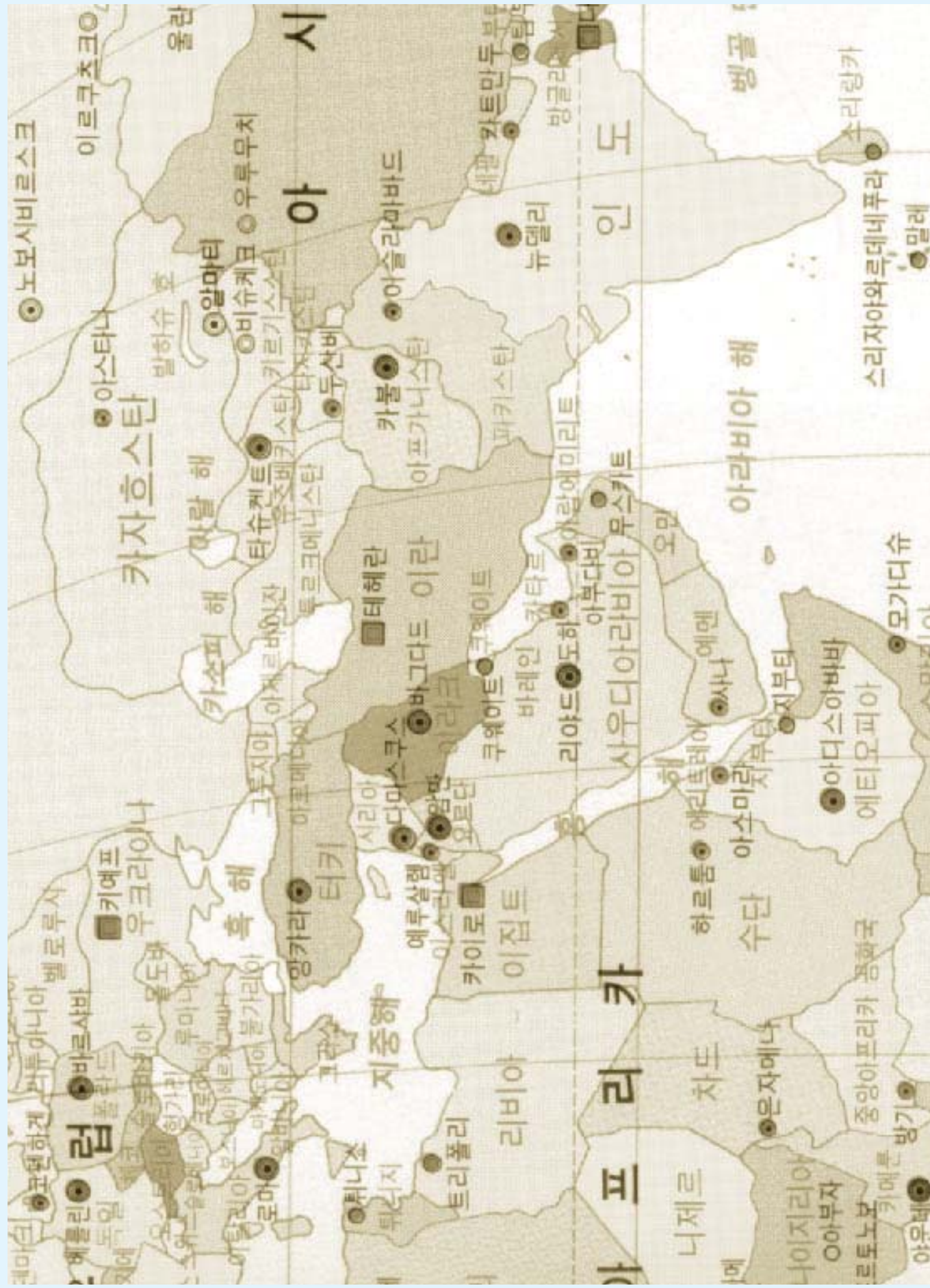
휴버만은 특유의 재치있고 명쾌한 문장으로 수백 년에 이르는 미국 역사를 생생하게 서술해 나간다. 게다가 청소년

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쉽기 때문에, 독자들은 몇 개의 장을 제외한다면 소설처럼 단번에 술술 읽어나갈 수 있다.

휴버만이 그려내는 역사 서술의 생동감은 단지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역사를 단순히 사건이나 지배자들의 업적을 나열하는 것으로 보는 기성 역사관을 거부했다. 그는 사건 자체보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관심을 가졌고, 특정 사건이 벌어지게 된 사회적 힘에 주목했다. 그는 역사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계급들 간의 갈등과 투쟁이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독립 전쟁, 남북 전쟁, 산업 혁명, 식민지 팽창, 노조 파괴, 대공황과 전쟁이 각각 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엄청난 빈부 격차와 전쟁과 침략을 달고 다니는 오늘날의 미국 자본주의가 성장해 온 과정이다.





월간 <다함께> 지난호 목차



10월호(5호)

전쟁은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은 말한다
조지 W 부시의 사악한 정책
미국 정부가 최대의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
탈레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즘 비판
세계 경제는 공황으로 가는가
김수행 교수 강연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시장이 낳은 주택대란



9월호(4호)

한나라당의 우경화 압력에 반발해야
언론사주를 구속하라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민주노총 수배 간부들의 자진 출두 이면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노조 합법화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제노바 G8회담 반대 시위
소련 붕괴 10주년
가톨릭 급진주의는 죽었는가?
모든 정치수를 석방하라
부시의 MD 계획에 대한 반대 운동
아르헨티나
메가와티의 불안한 앞날

8월호(3호)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모든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하라
헬렌 켈러
'8.15 민족공동행사'를 비판한다
민주노총 상반기 파업 평가
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연목2동 수재민 대책위원 인터뷰
클리백 가격을 인하하라
매매준 합법화
부시 행정부 6개월 평가
제노바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
이스라엘 : 중동 전쟁의 화근



7월호(2호)

심화되는 정치위기
대우차는 어디로
진정한 폭력
좌결된 개혁 입법
서울대 개혁 논란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안락사 합법화 논쟁
<민>지의 모호한 김대중 퇴진론
모성보호법 - 후퇴 없이 즉각 개정해야
7차 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6.15 공동선언 1년을 돌아보며
새만금 간척이 가져올 결과들
민족과 계급
격동의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5월호(장간호)

다함께 창간에 붙여
케백의 반자본주의 시위
공장점거에 들어간 캐리어 하청 노동자들
조직 노동자들이 관건이다
언론 개혁을 거부하는 조·중·동
보험제정 고갈의 원인
무기 살 돈을 의료비로 돌려라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말한다
미친 스타 워즈 계획을 중단하라
중동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부시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
미스코리아 대회 - 여성 차별 축전
계속되는 경찰 폭력 위협
경찰은 왜 그러도 폭력적일까?
김대중 퇴진을 지지하지 않는 주장을 비판한다
일본 사회의 양극화와 역사 교과서 왜곡